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한 지 수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입체주의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작품제작

2023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뷰티융합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전공
김 소 정

입체주의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작품제작

한 지 수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뷰티융합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전공
김 소 정


인 준 서

김소정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3년 5월

심사위원장 김 규 령 

심 사 위 원 황 신 희 

심 사 위 원 한 지수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논문개요

회화는 단순히 보여지는 장식성 뿐만 아니라 시각적 요소를 제공하며 작품을 보는 행위를 통해 감상자들에게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건축, 패션, 디자인 등 여러 분야에서 영감을 얻기 위한 소재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진다. 아트 메이크업 분야 또한 회화작품을 모티브로 공식처럼 여겨지던 표현기법과 색채의 선택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메이크업 디자인을 창조해 낸다.

아트 메이크업은 조형예술의 한 장르로써 인간의 내적인 이미지 세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의 의도가 감상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 작품의 주제와 연관성이 있는 입체주의 작품의 조형적 특성을 모티브로 삼았다.

본 연구는 작품 제작에 우선해서 입체주의의 개념과 발전단계를 고찰하여 입체주의 회화의 표현방법을 시기별로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조형적 특성을 규명하였다. 입체주의의 조형적 특성은 선행연구와 단행본 등을 참고하여 동시성, 도형성, 중첩성, 해체와 재구성, 사실성 5가지로 분류하였다.

입체주의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작품을 제작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8개의 모든 작품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고착화된 개념과 기준에 대한 연구자의 생각을 담고 있다.

작품 I - Persona;lity는 입체주의의 조형적 특성 중에서 동시성을 나타낸 작품으로 사회적 인격인 페르소나(Persona)가 마치 자신의 원래 모습(Personality)인줄 착각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이미지화 한 것으로 오브제 활용기법과 디지털 미디어 기법을 접목하여 표현했다.

작품 II - Over There는 인간본연의 참모습을 파악하고 내재된 고유의 아

름다움을 찾자는 메시지를 담은 작품으로 입체주의의 조형적 특성 중에서 동시성을 나타냈다.

작품 III- Odd Eye는 입체주의의 조형적 특성 중 도형성을 나타낸 작품으로 ‘다름은 틀림이 아닌 특별함이다.’는 메시지를 담아 이미지화 했다.

작품 IV- Fragments on the face는 입체주의의 도형성을 나타낸 작품으로 내면에 존재하는 다양함을 기하학적 도형과 색채로 화면을 구성하여 표현했다.

작품 V- Flow는 다양한 색채를 반복하고 겹쳐 사용함으로써 외부와 단절되어 주체성을 찾는 모습을 의도하였으며 입체주의 조형적 특성 중 하나인 중첩성을 응용하여 표현했다.

작품 VI- Pieces of Me는 고유의 형태를 해체하고 모순되게 나열함으로써 입체주의 조형적 특성인 해체와 재구성을 나타냈다.

작품 VII- Camouflage는 입체주의의 조형적 특성 중 해체와 재구성을 접목하여 기존의 얼굴 형태를 해체하고 탈형식적인 형태로 재창조하여 표현했다.

작품 VIII- Illusion은 오브제 활용 기법을 접목해 입체주의의 조형적 특성 중 사실성을 나타낸 작품으로 관념에 의해 만들어지는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했다.

연구자는 예술은 경계를 허무는 것이며 우리의 관념적 의식을 지우고 자유를 허락하는 무한의 분야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체 위에 입혀지고 표현되어지는 아트메이크업은 보는 이들에게 더욱 강렬하고 효과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해 아트메이크업 디자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 디자인 요소를 접목함으로써 극대화된 이미지를 창출하려 했다. 또한 다양하고 폭넓은 작품 활동이 제시되기를 기대하며 아트메이크업 디자인을 창작하

고 그 영역을 넓혀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II. 이론적 배경	5
1. 입체주의의 일반적 고찰	5
1) 입체주의 정의	5
2) 입체주의의 발전단계	6
2. 입체주의의 조형적 특성	14
1) 동시성	14
2) 도형성	17
3) 중첩성	19
4) 해체와 재구성	21
5) 사실성	23
3. 아트메이크업	26
1) 아트메이크업의 정의	26
2) 아트메이크업의 조형요소	27
3) 아트메이크업의 표현기법	35
III. 작품 제작	44
1. 제작 의도	44

2. 작품설명 및 제작과정	47
IV. 결론	80
1. 요약 및 결론	80
2. 한계점과 제언	82

참 고 문 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시기별 입체주의의 표현 특성	13
<표 2> 입체주의 회화의 조형적 특성 분석	26
<표 3> 아트메이크업의 조형요소 선행연구 정리표	29
<표 4> 아트메이크업 디자인 계획	46
<표 5> 작품 I 디자인과 구성내용	49
<표 6> 작품 II 디자인과 구성내용	54
<표 7> 작품 III 디자인과 구성내용	58
<표 8> 작품 IV 디자인과 구성내용	62
<표 9> 작품 V 디자인과 구성내용	66
<표 10> 작품 VI 디자인과 구성내용	70
<표 11> 작품 VII 디자인과 구성내용	74
<표 12> 작품 VIII 디자인과 구성내용	78

그림 목 차

<그림 1> George Braque, House at Estaque, 1908	8
<그림 2> Pablo Picasso, House in the garden, 1908	8
<그림 3> Pablo Picasso, Portrait of Ambroise Vollard, 1910	10
<그림 4> Georges Braque, The Portuguese, 1911	10
<그림 5> Georges Braque, Fruit Dish and Glass, 1912	12
<그림 6> Georges Braque, Violin and Pipe, 1913	12
<그림 7> Pablo Picasso, The ladies of Avignon, 1907	16
<그림 8> Georges Braque, Musical Instruments, 1908	16
<그림 9> Pablo Picasso, The Weeping Woman, 1937	16
<그림 10> Pablo Picasso, Femme Assise, 1909	18
<그림 11> Jean Metzinger, Tea Time, 1911	18
<그림 12> Pablo Picasso, Musician with masks, 1921	18
<그림 13> Pablo Picasso, Houses on the hill, Horta de Ebro,1909	21
<그림 14> Pablo Picasso, Brick Factory at Tortosa, 1909	21
<그림 15> Pablo Picasso, Bread and dish with fruits on the table,1909	21
<그림 16> Pablo Picasso, The Accordionist, 1911	23
<그림 17> Pablo Picasso, Portrait of Daniel-Henry Kahnweiler,1910	23
<그림 18> Pablo Picasso, Girl with mandolin (Fanny Tellier),1910	23
<그림 19> Pablo Picasso, Still life with caned chair, 1912	25
<그림 20> Georges Braque, Bowl of Fruit, Bottle and Glass, 1912	25
<그림 21> Pablo Picasso, The guitar, 1913	25
<그림 22> 질감 1	31
<그림 23> 질감 2	31

<그림 24> 질감 3	31
<그림 25> 형태 1	33
<그림 26> 형태 2	33
<그림 27> 형태 3	33
<그림 28> 색채 1	35
<그림 29> 색채 2	35
<그림 30> 색채 3	35
<그림 31> 회화적 기법 1	37
<그림 32> 회화적 기법 2	37
<그림 33> 에어브러시 기법 1	38
<그림 34> 에어브러시 기법 2	38
<그림 35> 오브제 활용 기법 1	40
<그림 36> 오브제 활용 기법 2	40
<그림 37> 스텐실 기법 1	41
<그림 38> 스텐실 기법 2	41
<그림 39> 디지털 미디어 기법 1	43
<그림 40> 디지털 미디어 기법 2	43
<그림 41> 작품 I - Personality	50
<그림 42> 작품 II - Over There	55
<그림 43> 작품 III - Odd Eye	59
<그림 44> 작품 IV - Fragments on the face	63
<그림 45> 작품 V - Flow	67
<그림 46> 작품 VI - Pieces of Me	71
<그림 47> 작품 VII - Camouflage	75
<그림 48> 작품 VIII - Illusion	7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의 모습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많은 예술가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현대 미술에 있어서 다양하고 빠른 전개 속에서도 무한한 생명력과 운동감, 그리고 깊은 양감을 지니고 있는 인체는 예술표현에 있어 여전히 매력적인 대상이다. Bartlett는 “우리의 몸은 단지 물질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의미를 생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였다¹⁾. 육체적인 존재가 어떻게 사회적인 생각을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은 ‘의미 있는 생산자로서의 몸 (a body as a meaning producer)’ 이라는 그의 말에서 시작하였다.

아티스트들의 꾸준한 창작 활동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메이크업 분야에서 현 시대의 아트메이크업은 대중매체나 공연예술 장르 등과의 융합이 가능해진 덕분에 단순히 기능적인 영역을 넘어서 예술적 표현 영역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컬러와 오브제의 적극적인 활용, 새로운 기법의 개발을 통해 하나의 시각예술로 자리 잡게 되었고 여러 매체를 통해 대중들에게 노출되고 있다²⁾.

하나의 예술로 인정받고 있는 아트메이크업 분야가 더욱더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예술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아트메이크업 개발 연구가 필요함과 동시에 연구자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또한 미디어를 통해 이미지를 창조해 내는 역할을 함으로써 본인의 작품이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1) Bartlett, D (2014), 「Fashion media: Past and Present」, London: Bloomsbury, p.176.

2) 채송화 (2018), 창의적 발상법과 현대미술특성을 활용한 아트메이크업디자인 프로세스 연구, 서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

현대미술사조에서 나타나는 조형적인 요소들은 창의적인 아트메이크업 개발에 커다란 예술적 가능성을 제시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³⁾. 그러므로 현대미술사조의 표현 특성과 미적 특성을 중심으로 아트메이크업 경향을 분석할 필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⁴⁾.

20세기에 등장한 예술 운동 중 가장 실험적이며 새로운 모더니즘의 시작이었던 입체주의는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난 미술운동이지만 기존 미술사의 터부와 전통을 파괴하는 표현 방법으로 여러 문화사조에 영향력을 끼쳤으며, 이후에도 현대 회화는 물론 디자인까지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에게 지속적인 영감과 창조성의 원천으로 해석되고 있다⁵⁾는 점에서 그 의의가 높다.

입체주의의 표현 특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본 바 주로 단행본, 논문 등 문헌연구로 이루어졌으며 메이크업 작품 제작과 관련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아트메이크업과 입체주의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기존 연구는 최은화(2014)⁶⁾가 입체주의 특성을 적용한 아트메이크업 작품을 본인 작품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강현신(2011)⁷⁾은 입체주의 회화의 특성을 분류하여 아트메이크업 이미지에서 표현된 입체주의 회화의 특성과 연관성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이규리(2012)⁸⁾는 입체주의의 표현 기법 중 콜라주의 특성을 응용해 아트메이크업 작품을 제작하였다.

3) 김초롱 (2017), 트라이벌무드 패션 경향 및 표현 특성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개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

4) 채송화 (2018), op.cit., p.3.

5) 김상아 (2018), 피카소 큐비즘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프로젝션맵핑 바디아트 제작,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

6) 최은화 (2014), 입체주의 특성이 적용된 아트메이크업 작품 분석, 광주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8.

7) 강현신 (2011), 아트 메이크업에 표현된 큐비즘 이미지: 피카소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4.

8) 이규리 (2012), 입체주의적 콜라주 특성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4.

백지은(2014)⁹⁾은 피카소의 작품을 응용한 일러스트레이션을 제작하였다. 이경미(2012)¹⁰⁾는 피카소의 표현 방식을 적용하여 Photoshop을 이용한 아트메이크업 작품을 제작하였다. 김상아(2018)¹¹⁾는 피카소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하여 프로젝션 맵핑 기법으로 바디아트를 제작하였다.

송민아(2023)¹²⁾는 피카소 화풍을 응용한 회화적 기법의 일러스트와 페이스페인팅을 디자인하였다. 주로 입체주의의 주요 작가인 피카소의 작품에 국한되어 분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기 선행연구를 통해 일러스트, 아트메이크업, 바디아트 등 미용예술 분야에서 많은 작품을 제작하는데 입체주의의 표현특성이 응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주로 입체주의의 주요 작가인 피카소의 작품에 국한된 분석이었거나 피카소의 작품을 모티브로 한 연구들이 많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미술사조 중 입체주의를 선택하였으며 기존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입체주의의 선입견을 배제함과 동시에 연구자만의 의도대로 독창적으로 가공하고 재해석 하는 것에 그 차이를 두었다.

인간본연의 내재된 아름다움을 이끌어내어 다채로운 색채와 형태로 표현하였으며 인간의 내면적 스펙트럼을 시각적, 미학적으로 고찰하여 표현의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연구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감상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국내·외 단행본, 학술지, 학위논문 등의 선행연구 및 인터넷 자료를 바탕으로 입체주의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9) 백지은 (2014), Pablo Picasso 작품을 응용한 뷰티 일러스트레이션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6.

10) 이경미 (2012), Photoshop을 이용한 아트메이크업의 피카소 큐비즘적 표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3.

11) 김상아 (2018), op.cit., p.34.

12) 송민아 (2023), 피카소 화풍을 응용한 회화적 기법의 뷰티일러스트와 페이스페인팅 디자인 연구, 영산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2.

입체주의의 조형적 특성을 동시성, 도형성, 중첩성, 해체와 재구성, 사실성으로 분류한다. 입체주의의 조형적 특성과 아트메이크업 기법을 접목하여 아트메이크업 디자인을 기획하고 총 8개의 작품 이미지를 제작하였다.

Ⅱ. 이론적배경

1. 입체주의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입체주의 정의

큐브(Cube)의 사전적 의미는 각(角), 굽은, 모양이 각진 모양, 입방체, 정육면체¹³⁾[正六面體, Cube]로 번역한다. 육면체 중에서 모든 면이 정사각형인 것으로 입방체(立方體)라고 한다. 큐브(Cube)에 e가 빠지고 미술 양식인 ~주의(ism)가 붙어 Cubism이라고 한다. 큐비즘의 사전적 의미는 미술 용어로 입체파[立體派, Cubism], 입체주의라고 번역한다¹⁴⁾.

‘입체주의’ 명칭은 1908년 칸바일러 갤러리에서 진행된 전시회를 비평하는 자리에서 미술평론가 루이 보셀르(Louis Vauxcelles: 1870~1943)가 당시 새롭게 등장하고 있던 양식에 대해 처음으로 ‘큐브(Cube)’라는 어휘를 언급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머지않아 큐브라는 말은 이 양식을 지칭함에 사용된다. 큐비즘(Cubism)이란 용어는 1911년부터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¹⁵⁾.

입체주의(Cubism)는 20세기 초 야수파 운동과 전후해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 파급된 아방가르드¹⁶⁾ 미술운동을 말한다. 인간 형상을 위한

13) 한 개의 꼭짓점에 3개의 면이 만나고, 6개의 정사각형 면으로 이루어진 3차원 정다면체로 사각기둥의 한 종류이다.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정육면체>

(검색 일자: 2023.01.13.)

14) 송아라 (2009), 큐비즘을 활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

15) 에드워드 F. 프라이, 김인환 역 (1988), 「큐비즘」, 서울: 미진사, p.102.

16) 20세기 초 프랑스와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미국 등에서 일어난 예술운동으로 기존의 예술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부정하고 새로운 예술의 개념을 추구하는 예술 경향을 뜻한다. 두산백과 두피디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39695&cid=40942&categoryId=33131>

(검색 일자: 2023.01.13.)

고전적 규범과 일점 원근화법으로 지속된 르네상스 이래 500년간의 미술 전통과 근본적으로 단절하고, 여러 시점과 분할된 투시법으로 창출된 새로운 운동이다¹⁷⁾. 큐비스트는 사전적 의미에서 입체파 예술가로 정의된다. 문헌자료들에 의해 미술운동을 지칭할 때 ‘큐비즘’ 혹은 ‘입체파’로 기재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입체주의’라고 정의하며, ‘큐비스트’ 또한 ‘입체주의 작가’ 혹은 ‘입체주의 회화작가’라고 기재한다.

2) 입체주의의 발전단계

평론가들은 한동안 입체주의 회화의 발전단계를 초기의 분석적 시기와 후기의 종합적 시기 두 단계로 구분하였다. 입체주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분류되어지며 이러한 단계의 구분은 다양한 시각으로 선택적 용어에 차이를 나타낸다.¹⁸⁾ 본 연구에서는 입체주의의 발전단계를 세잔의 조형양식이 도입되는 초기 입체주의와 분석적 입체주의, 그리고 후기의 종합적 입체주의 3 단계로 구분한다.

① 초기 입체주의 (1907~1909)

1907년부터 1909년 사이를 초기 입체주의라고 하며 후기 인상파 화가 폴 세잔(Paul Cezanne: 1839~1906)의 기하학적 조형 이론의 영향으로 형태에 대한 분석적 시각을 접목한 작업을 하게 된 시기이다. 세잔의 “자연의 형태는 원추, 원통, 구형으로 나눌 수 있다”는 주장을 이론적인 근거로 하여,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와 조르주 브라크(Georges Braque:

17) 김주희 (2013), 입체주의 표현기법을 활용한 미술수업 지도방안 연구: 중학교 2학년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18) 노석준 (1993), 큐비즘회화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6.

1882~1963)가 입체주의를 발전시켰다¹⁹⁾.

이 시기에 입체주의 작가들은 고전적 사실주의 기법인 명암, 색채, 원근법 등을 무시하고, 대상의 재현보다는 화면의 구성 방식에 관심을 가졌으며 대상의 자연적 형태를 기하학적 도형으로 해체하여 형태를 요약하고 단순화하였다. 또한, 복수 시점을 이용해 관찰된 수많은 부분을 화면에서 재배치하는 방법으로 사물의 본질적인 형태를 화면에 구축하려고 하였다²⁰⁾.

<그림 1>에서는 자연의 대상성은 뚜렷하게 남아 있으나 전체가 두드러지게 단순화되어 어떤 종류의 기하학적 질서로 대치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2>에서도 마찬가지로 기하학적으로 선을 단순화하고 대상을 구체, 삼각뿔, 원뿔, 원통형 등 입방체를 응용하여 마무리함으로써 형태를 단순화하고 왜곡, 삭제시킨 초기 입체주의의 특징들을 볼 수 있다²¹⁾.

이 시기에 피카소와 브라크에 의해서 자연의 모방은 더 이상 미술의 근원적인 주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²²⁾. 세잔의 환원주의는 입체주의에 와서 대상이 가지는 형의 시각적 재현에서 작가에 의한 형의 개념적 시각화로 변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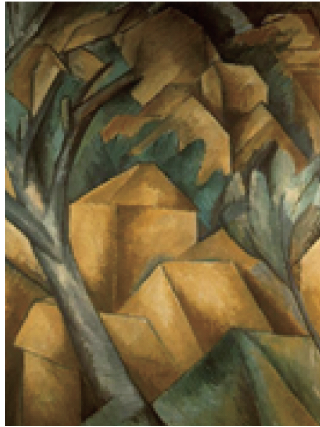
19) 김성봉 (2000), 입체파의 조형성이 러시아 구성주의 건축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4.

20) Ibid., p.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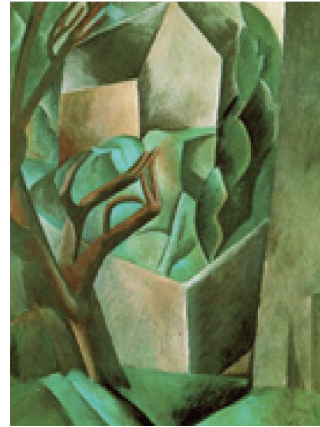
21) 유대순, 김일분 (1993), 큐비즘(cubism) 미술이 현대 의상 디자인에 미친 영향: 1910~1920년대를 중심으로,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연구논문집, 46(1), p.196.

22) 안네 간테퀴러-트리어, 김광우 역 (2008), 「입체주의」, 서울: 마로니에북스, p.16.

23) 김순미 (2009), 중학교 미술감상 수업을 통한 입체파의 형(form)개념 학습지도안 연구: 피카소 작품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



<그림 1>
George Braque,
House at Estaque, 1908
(<https://www.wikiart.org/en/georges-braque/houses-at-estaque-1908>
검색 일자: 2023.01.16.)



<그림 2>
Pablo Picasso,
House in the garden, 1908
(<https://www.wikiart.org/en/pablo-picasso/house-in-the-garden-1908>
검색 일자: 2023.01.16.)

② 분석적 입체주의 (1909~1912)

1909년부터 1912년 사이로 초기 입체주의의 조형 논리가 극대화되는 경향을 보여주며 추상미술로 발전하는 기초를 확립한 시기이다. 주로 피카소와 브라크 그리고 1912년의 후안 그리스(Juan Gris: 1887~1927)의 작품들에 의해 절정을 이뤘으며 이 시기의 작품들은 자연형태를 해체하고 우리의 지성에 의해 해체된 면을 자유로이 재구성시키면서 새로운 형태를 발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양식은 대상을 해체해서 표현함으로써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석적 입체주의라고 명명되었다.

분석적 입체주의의 조형적 특징은 사물의 형태를 분석하여 수많은 파편으로 해체하고 다시 평면의 화면 위에 새롭게 나열된다는 것이다. 분해된 형태가 전후좌우에 서로 뒤섞여지면서 마치 거울면을 반사하듯이 표현하여 '시각적인 확대'를 획득하게 된다. 주로 직각과 직선 구도가 많이 쓰였으며

형태는 세밀하게 결정화되고 배경화면을 포함한 모든 묘사 대상이 해체되어 동등한 가치를 이루고 있다. 특히 분석적 입체주의 시기의 작품은 점, 선, 면 등 회화의 기본 조형 요소들로 분해된 형체를 평면에 재구성하여 표현함으로써 새로운 조형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분석, 해체, 재구성의 과정에서 배경과 물체 사이의 뚜렷한 경계가 상실되며 검은색, 회색, 황토색 같은 기본적 색채들만을 제한적으로 사용한 단색조의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화면에서의 입체감은 사라지고, 대상의 형태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면서 작품 해독은 어려운 경향을 보인다²⁴⁾.

하지만 극단적으로 분해된 형체를 평면에 재구성하는 것은 대상의 본질을 희미하게 하는 대신 풍부한 조형성을 창조해 냈다. 이것은 대상 없이도 조형성은 성립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해 주었다²⁵⁾.

분석적 입체주의의 전형적인 예로써 <그림 3>을 보면 화면의 공간이 완전히 조각들로 낱낱이 쪼개져 있고 흩어진 화면에서 색조를 달리함으로써 미술상의 두상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²⁶⁾.

<그림 4>에서는 포르투갈 여인의 초상을 수많은 조각과 작은 면들로 해체하고 있다. 원래의 모티프를 생각해 낼 수 있는 단서라고는 옆얼굴의 윤곽선과 머리에 꽂은 빗, 화면 아래쪽에 보이는 기타의 현 몇 줄과 둥글린 곡선 따위의 극미한 소묘밖에 없다²⁷⁾.

이 시기 입체주의 화가의 작품은 모두 공간과 물체 사이가 구별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상은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추상화되었으며 붓 터치와 표면 질감의 통일은 화면 전체를 융합시키고 있다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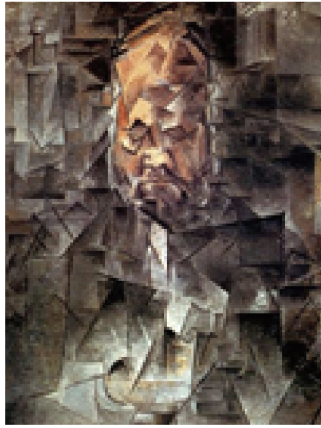
24) 김성봉 (2000), op.cit., p.9.

25) 오광수 (1976), 「서양근대회화사」, 서울: 일지사, p.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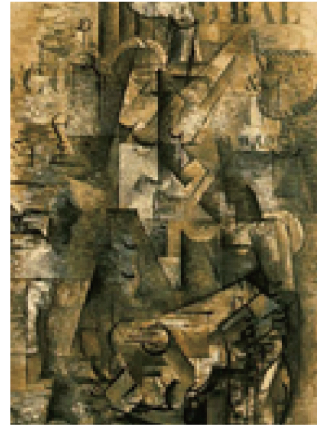
26) 최은화 (2014), op.cit., p.5.

27) 하요 뒤히팅, 김재웅 역 (2008), 「어떻게 이해할까? 입체주의」, 서울: 미술문화, p.34.

28) 임혜순, 충쇼우닝 (2016), 큐비즘 회화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의상 디자인 개발,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8(1), p.66.



<그림 3>
Pablo Picasso,
Portrait of Ambroise Vollard, 1910
(<https://www.wikiart.org/en/pablo-picasso/portrait-of-ambroise-vollard-1910>
검색 일자: 2023.01.17.)



<그림 4>
Georges Braque,
The Portuguese, 1911
(<https://www.wikiart.org/en/georges-braque/portuguese-1911>
검색 일자: 2023.01.17.)

③ 종합적 입체주의(1912~1914)

1912년부터 1914년까지의 종합적 입체주의는 초기, 분석적 입체주의 시기의 분해된 대상의 파편이 종합되어 화면에 대상을 암시할 수 있는 사실적 요소가 도입되는 시기이다²⁹⁾. 대상의 해체 작업이 절정에 달한 피카소와 브라크의 작업에서 대상의 윤곽은 완전히 분해되어 대상의 사실감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형태의 분석을 억제하고 사실적 요소를 재등장시키기 위해³⁰⁾ 입체주의는 새로운 미술사조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콜라주(Collage), 파피에 콜레(Papier colle) 기법을 탄생시켰다³¹⁾.

파피에 콜레는 화면에 즉물적(即物的)으로 신문지나 벽지, 담배갑이나 종

29) 윤선옥 (2014), 해체와 조합에 의한 도자조형 연구: 사물의 박제화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

30) 최예리 (2013), 현대 패션에 나타난 큐비즘스타일패션 연구: 2010S/S~2013S/S파리컬렉션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7.

31) G. 아블리네에르, 오병욱 역 (1991), 「미학적명상: 입체주의 화가들」, 서울: 일지사, p.166.

잇조각 등을 찢어 붙이는 기법으로³²⁾ 콜라주의 일종이다. 최초의 파피에 콜레 작품인 <그림 5>는 나뭇결 무늬의 벽지와 목탄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³³⁾. 이 작품에서 브라크는 식탁 위를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과일 접시를 목탄으로 그린 후 3장의 벽지를 붙여 정면에서 보는 시점의 카페의 벽과 책상 서랍을 나타냈다. 잘린 벽지는 화면에서 색채로서 구성의 기능을 할 뿐 아니라 형태로서도 독자적 기능을 하게 되었다³⁴⁾. 흥미로운 점은 3차원 입체인 과일이나 접시는 섬세한 선묘로 되어 있고 주변의 공간은 벽지로 붙여져 오히려 구체적으로 되었다는 점이며, 이와 같은 예상을 뒤엎는 시각적인 모순은 이후 입체주의 작품에서 보이는 하나의 특징이 된다³⁵⁾.

반면, 콜라주는 파피에 콜레 기법을 발전시킨 형태로 실제의 바늘, 형질, 나무껍질을 붙여 다양한 재료의 사용을 보여 주었다³⁶⁾. 콜라주의 본래 의미는 ‘풀칠’과 ‘바르기’를 뜻하였으나, 화면에 공업 생산된 재료인 인쇄물, 천, 쇠붙이, 나뭇조각, 모래, 나뭇잎 등 여러 가지 물체를 캔버스나 화판에 붙여서 2차원적 화면이나 저부조로 구성하는 회화의 기법, 또는 그러한 기법에 의해 제작되는 회화를 가리킨다³⁷⁾.

1913년에 제작된 브라크의 작품인 <그림 6>을 보면 현악기를 닮은 모양으로 분해해 그것의 기본을 이루는 구조적인 선과 물결 모양의 마분지, 신문 문자, 벽지 등으로 ‘종합’ 하고 있다³⁸⁾.

작품을 통해 장식적인 형태의 도입과 함께 분석적 입체주의에서 제한되

32) 문지현 (2007), 입체주의 양식을 활용한 자화상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5.

33) 정문규 (1982), 「브라크」, 서울: 서문당, p.106.

34) 임경옥 (1999), 피카소 작품 양식 변화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5.

35) Ibid., p.16.

36) 김현아 (2017), 파피에 콜레와 콜라주 표현기법을 활용한 미술지도 프로그램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

37) Ibid.

38) 캐롤 스트릭랜드, 김호경 역 (2000), 「클릭, 서양미술사: 동굴벽화에서 비디오아트까지」, 서울: 예경, p.251.

었던 밝은 색상이 사용되며 화면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후 신문, 벽지, 나뭇결무늬, 종이 등 여러 종류의 종지와 톱밥, 모래 등 유사한 재료들이 입체주의 화가들의 그림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³⁹⁾.

그림은 이런 방법으로 새로운 회화적인 리얼리티를 창출하는 실체적이며 재료적 성격을 얻게 되었다⁴⁰⁾. 활자체나 단어와 같은 현대적 조형 요소와 대중 문화적 요소의 등장으로 회화가 점차 현대화되었고, 이는 미술작품이 자연이 아닌 예술이나 인공물에서 유래한 각 요소의 조합으로 창조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⁴¹⁾. 이는 회화가 더 이상 시각만을 위한 예술이 아니라 촉각까지 자극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 시기별 입체주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표현 특성은 <표 1>과 같다.



<그림 5>
Georges Braque,
Fruit Dish and Glass, 1912
(<https://www.wikiart.org/en/georges-braque/fruitdish-and-glass-1912>
검색 일자: 2023.01.18.)



<그림 6>
Georges Braque,
Violin and Pipe, 1913
(<https://www.wikiart.org/en/georges-braque/violin-and-pipe-le-quotidien-1913>
검색 일자: 2023.01.18.)

39) 최은화 (2014), op.cit., p.10.

40) 김주희 (2013), op.cit., p.10.

41) 노버트 린튼, 윤난지 역 (1993), 「20세기의 미술」, 서울: 예경, p.70.

<표 1> 시기별 입체주의의 표현 특성

	초기 입체주의 (1907~1909)	분석적 입체주의 (1909~1912)	종합적 입체주의 (1912~1914)
작품			
형태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여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	대상을 분석하고 해체하여 재구성	오브제들의 콜라주 기법을 이용한 평면적인 색면 구성
색채	원색의 제한된 사용	무채색에 가까운 저채도의 색상	밝은 색채의 사용
기법	단순화	재구성	콜라주

2. 입체주의의 조형적 특성

입체주의의 조형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이를 재구성하여 입체주의의 조형적 특성을 분류하였다.

최예리(2013)⁴²⁾와 송아라(2009)⁴³⁾의 연구에서는 입체주의의 조형적 특성을 도형성, 해체와 재구성, 중첩성, 동시성, 사실성으로 분류하였다. 임혜순, 충쇼우닝(2016)⁴⁴⁾의 연구에서는 기하학적 조형성, 동시성, 투명성, 콜라주, 해체와 재구성으로 세분화 하였고, 김상아(2011)⁴⁵⁾의 연구에서는 도형성, 동시성, 투명성, 해체성으로 분류하였다. 박은희(2008)⁴⁶⁾의 연구에서는 평면성, 기하학적 조형성, 다시점에 입각한 투명성, 양감, 오브제의 다양성으로 분류하였다.

상기의 입체주의의 조형적 특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입체주의의 조형적 특성을 동시성, 도형성, 중첩성, 해체와 재구성, 사실성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1) 동시성

일반적으로 동시성(Simultaneity)⁴⁷⁾이라는 용어는 서로 다른 어떤 두 사건이 같은 시간에 이루어지거나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⁴⁸⁾. 입체주의에서 표

42) 최예리 (2013), op.cit., pp.22-35.

43) 송아라 (2009), op.cit., pp.19-33.

44) 임혜순, 충쇼우닝 (2016), op.cit., p.66.

45) 김상아 (2017), op.cit., pp.6-11.

46) 박은희 (2008), 피카소의 조형성에 근거한 샤넬 의상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0(3), pp.344-351.

47) 사전적 의미로는 물리학에서 서로 다른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뉴턴역학에서는 절대적인 시공간이 있으므로 서로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두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특수상대성이론에서는 같은 위치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48) 류지석, 오찬욱 (2005), 큐비즘에 관한 연구 베르그송 철학과 동시성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학회지, 18(3), p.125.

현된 동시성의 개념은 단일한 이미지 위에 많은 시점의 공존을 시각화하는 개념이다. 기존의 원근법에 의한 회화는 한 시점에서의 대상의 고정된 모습을 보여주지만 여러 개의 연속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입체주의 회화는 동시성인 시점의 복수화를 통해 하나의 형체나 오브제를 동시적인 시각에서 바라봄으로써 대상을 분해하고 해체하며 화면에 그 모든 단면을 동시에 나타낸다. 즉, 대상의 해체를 통해 관찰자의 이동에 의해 관찰되는 대상의 여러 가지 모습을 화면에 한 번에 담는 것을 의미한다⁴⁹⁾. 입체주의는 르네상스 이후 회화의 절대적 규범이었던 원근법의 오류를 탈피하기 위하여 시점의 복수화, 동시성의 표현 형식을 시도한 것이다.

여러 개의 연속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입체주의 회화는 이러한 다양한 모습을 차례대로 구성하거나 독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중첩시켜 하나의 이미지로 통합해 보여줌으로써 동시에 다양한 시점에서 각각의 시간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이다. 동시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면의 분할과 겹침, 면들 사이의 투명성 특성들이 같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⁰⁾.

그 예로 최초의 입체주의 작품이라고 평가되는 피카소의 작품인 <그림 7>을 보면 동시성에 대한 입체주의의 특성을 볼 수 있다. 작품 속의 여인들은 옆모습과 앞모습 모두를 동시에 취하고 있다. 원근법을 무시한 채 정면을 보고 있는 두 여인의 코는 측면으로 그려져 있으며 측면으로 보이는 왼쪽 여인의 눈은 정면으로 묘사되어 있다⁵¹⁾.

<그림 8>에서 우리는 더 발전된 다양한 시점의 표현 방법을 발견한다. 만돌린의 윗부분을 앞으로 기울임으로써 관람자로 하여금 악기의 위와 아래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도록 표현하였고, 눈이 실제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만돌린의 울림통을 보여준다.

49) 홍주영 (2014), 큐비즘 회화의 조형적 특성을 활용한 헤어아트: 피카소 작품을 중심으로, 서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39.

50) 송아라 (2009), op.cit., p.24.

51) 인고 발터, 정재곤 역 (2005), 「파블로 피카소」, 서울: 마로니에북스, p.37.

<그림 9>에서도 여인의 얼굴과 의상, 손, 배경은 모두 다른 평면 조각을 이어 붙인 듯 보인다. 여성의 얼굴 실루엣은 옆모습을 하고 있는 반면에 눈동자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손가락과 치아 입술이 뒤섞여 조각난 듯 표현되었고 손과 손수건은 하나가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시점을 담은 각각의 조각들이 한 화면에 담김으로써 여인이 울고 있다는 사실과 슬픔에 대한 감정은 감상자에게 매우 정확하게 전달된다. 입체주의 화가들은 기존의 원근법과 함께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고정된 미의식을 깨트리고 다양한 ‘개체성’을 포용하면서 다른 것들과 조화하는 아름다움을 고정된 시점이 아닌 다시점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7>
Pablo Picasso,
The ladies of Avignon,
1907
(https://en.wikipedia.org/wiki/Les_Demoiselles_d%27Avignon
on
검색 일자: 2023.01.20.)



<그림 8>
Georges Braque,
Musical Instruments,
1908
(<https://www.wikiart.org/en/georges-braque/musical-instruments-1908>
검색 일자: 2023.01.20.)



<그림 9>
Pablo Picasso,
The Weeping Woman,
1937
(https://en.wikipedia.org/wiki/The_Weeping_Woman
검색 일자: 2023.01.20.)

2) 도형성

분석적 입체주의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며 표현 대상을 강조하거나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 대상을 기하학적 형태로 생략하고 단순화, 왜곡시키기 위해 도형 방법을 사용하였다⁵²⁾. 입체주의 작가들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표현하는 고전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모든 자연 형태를 단순한 직선, 원, 다각형, 원통, 원추, 구 등 기본적인 기하학적 형태로 분석하였다. 인물뿐 아니라 배경이나 사물의 형태들을 사각형, 삼각형 혹은 원형으로 단순하게 표현하였으며 대상을 최대한 분해하여 수많은 단면들로 구성하였다⁵³⁾.

이렇게 분석된 형태는 화면에 재구성되어 대상의 외관보다는 내적 구조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하였으며, 그 분석된 형태만으로 화면을 구성함으로써 대상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물의 3차원을 표현하려는 새로운 조형 방법이 나타났다⁵⁴⁾.

1909년 그렸던 피카소의 인물화 연작들 중 하나인 <그림 10>을 살펴보면 인체를 원뿔, 각추, 각뿔과 같은 입방체의 형태로 보고 인체를 분해하여 재구성하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양감적 볼륨감과 함께 엄숙하고 위엄있는 형태미를 자아내고 있다⁵⁵⁾.

장 메칭제(Jean Metzinger: 1883~1956)의 작품인 <그림 11>에서도 풍경의 아름다움이나 여성의 우아함을 기하학적 형태들로 표현함으로써 평면들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내어 구조를 더욱 잘 만들고 형태와 색채 사이의 관계를 좀 더 투시할 수 있게 된다⁵⁶⁾.

<그림 12>에서 피카소는 기하학적인 단순한 도형적 요소들로 견고하게

52) 송아라 (2009), op.cit., p.25.

53) 박은희 (2008), op.cit., p.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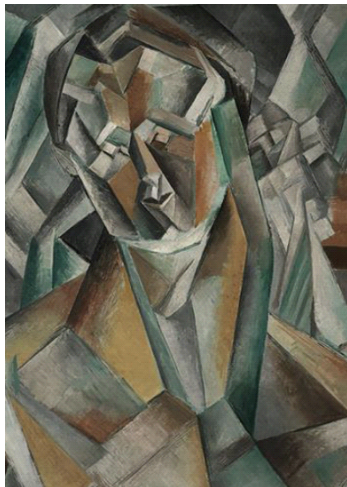
54) 송아라 (2009), op.cit., p.25.

55) 성필규 (2011), 분석적 큐비즘 회화의 기하학적 형태미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2.

56) 송아라 (2009), op.cit., p.26.

짜여진 서정적이고 표현적인 작품을 창조했다. 이 작품에서 어릿광대의 의상 마름모꼴 무늬나 수도승의 턱수염 등 전체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형태와 색채는 현실감을 나타내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상황을 음악적 표현으로 전달하는 기호 역할도 한다⁵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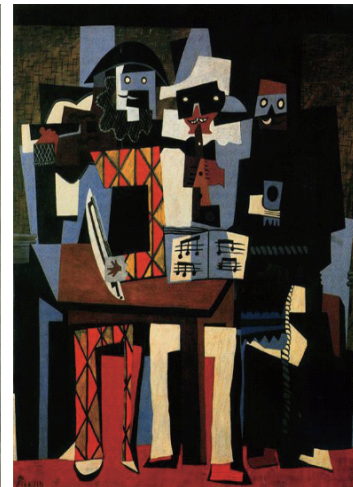
기하학적 형태는 유기적인 형태와는 달리 명확성, 합리성, 단순성 등을 갖고 있어 강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많은 조형작품에 사용되고 있으며 기술적인 필연성을 포함하고 있다⁵⁸⁾. 입체주의 시기의 작품들을 처음 보았던 사람들이 것처럼 강렬한 인상을 받았던 것은 기하학적 측면인 도형성 때문이며 이러한 측면은 시각적 사건과 일화를 제거하고 본질적인 실체를 지극히 순수하게 그렸다는 사실로부터 파생하였다⁵⁹⁾.



<그림 10>
Pablo Picasso,
Femme Assise, 1909
(<https://www.wikiart.org/en/pablo-picasso/femme-assise>
검색 일자: 2023.02.07.)



<그림 11>
Jean Metzinger,
Tea Time,
1911
(<https://www.wikiart.org/en/jean-metzinger/le-go-ter-1911>
검색 일자: 2023.02.08.)



<그림 12>
Pablo Picasso,
Musicians with masks,
1921
(<https://www.wikiart.org/en/pablo-picasso/musicians-with-masks-1921-1>
검색 일자: 2023.02.08.)

57) 이현주 (2003), 피카소의 회화를 응용한 바디아트(Body Art)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2.

58) 성필규 (2011), op.cit., p.20.

59) 임혜순, 충쇼우닝 (2016), op.cit., p.69.

3) 중첩성

사전적인 의미의 중첩(Overlapping)은 부분적으로 덮거나 같은 공간을 중복되게 덮는 것으로 거듭 겹치거나 포개어진다는 뜻이다⁶⁰. 중첩은 한 단위가 부분적으로 그것을 위에 있는 다른 단위에 가리어질 때 생기는 것으로 이것은 한 대상이나 여러 대상의 배치에서 생길 수 있다.

입체주의 작품에서 중첩은 대상의 표현적 특징으로 나타난 조형성으로써 해체되고 분해된 대상이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형태가 부분적으로 그것의 위에 있는 다른 형태를 가리면서 형태의 겹침이 발생하여 나타난다⁶¹.

이러한 형태의 겹침은 부분적으로 강조하기보다는 통일된 패턴 안에 집중됨으로써 그 형태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드는⁶² 것으로 이때 면들이 서로 접근하거나 가로질러 서로를 차단하여 공간적 효과를 내기도 한다. 이렇게 중첩으로 인하여 얻어진 결합은 깊이의 효과를 이용한 의도적인 조정과 형태의 변형으로 착시를 만들어 낼 수 있다⁶³.

면들의 중첩으로 나타나는 화면구성 방식은 피카소의 풍경화 작품에도 종종 나타난다. <그림 13>을 보면 집들의 형태를 볼륨감 있게 표현하고 원근법을 파괴한 화면 안에서 거리감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화면을 겹치는 면들로 구성하였다. 예를 들면 멀리 있는 사물들은 소실되도록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그려지고, 가끔은 크기를 증가시키거나 더 높이 올려서 표현하는 등 입체주의 화가들은 자유로운 시점의 편성을 즐겼다⁶⁴. 이러

60) 네이버 사전,
https://dict.naver.com/search.dict?dicQuery=overlapping&query=overlapping&target=dic&ie=utf8&query_utf=&isOnlyViewEE= (검색 일자: 2023.02.10.)

61) 성필규 (2011), op.cit., p.17.

62) 이재윤 (2002), 직물의 중첩효과 연구: 중조직 기법을 이용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63) Ibid.

64) 송아라 (2009), op.cit., p.31.

한 형태는 배경에 있는 형태들이 관객들을 향해 쏟아지는 듯한 느낌을 주며 화면에서 대담하고 건축적인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⁶⁵⁾.

<그림 14>에서는 멀리 있는 사물을 작게 그린 것이 아니라 크게 강조해 그리고, 높이는 시점에 얽매이지 않도록 자유롭게 배치한 것을 볼 수 있으며⁶⁶⁾ 다른 형태 위로 한 형태를 개방시킴으로써 서로 통하여 긴밀하게 얽히게 된다⁶⁷⁾. 작품속의 건물, 나무의 입체감과 거리감을 색과 중첩된 면들로 나타내고 있다.

<그림 15>에서도 평면이나 기하학적인 형, 선, 각도들이 마음대로 뒤섞여 서로 겹쳐지면서 때로는 투명한 평면으로 평판화되고 있고 피카소의 회화는 공간과 볼륨을 조각난 면들로 나누어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는 것을 볼 수 있다⁶⁸⁾.

65) 성필규 (2011), op.cit., p.17.

66) 안유현 (2023), 큐비즘의 조형성과 해체주의 패션의 특성을 결합한 패션디자인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2.

67) 배삼수 (2001), 세잔의 작품이 큐비즘에 끼친 영향 연구, 경기대학교 조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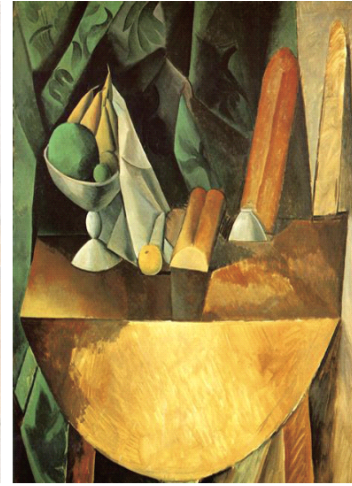
68) Ibid., p.11.



<그림 13>
Pablo Picasso,
Houses on the hill,
Horta de Ebro, 1909
(<https://www.wikiart.org/en/pablo-picasso/houses-on-the-hill-1909> 검색 일자:
2023.02.21.)



<그림 14>
Pablo Picasso,
Brick Factory at
Tortosa, 1909
(https://en.wikipedia.org/wiki/Brick_Factory_at_Tortosa
a 검색 일자: 2023.02.21.)



<그림 15>
Pablo Picasso,
Bread and dish with
fruits on the table, 1909
(<https://www.wikiart.org/en/pablo-picasso/bread-and-dish-with-fruits-on-the-table>
a 검색 일자 : 2023.02.22.)

4) 해체와 재구성

입체주의 회화 작품들이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조형적 특성은 해체와 재구성이다. 이는 대상을 철저하게 해체하여 기하학적인 형태로 환원시켜 2차원의 평면 안에서 재구성한다는 것이다. 오브제의 완전한 실제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입체주의 화가들은 마치 대상을 해부하듯이 해체하였고 그 해체와 재구성을 통해 현실적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고 새로운 구성을 창출하여 여러 각도에서 본 모양을 2차원의 평면 안에서 표현하였다⁶⁹⁾.

피카소의 작품 <그림 16>, <그림 17>은 그 대표적인 예로써 선과 면 그리고 각도들이 무수히 겹치고 뒤섞이면서 입체와 평면이 함께 그려진 느낌

69) 최미라 (2004),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추(醜)이미지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6.

을 받을 수 있다⁷⁰⁾. 주제는 해체, 분해되어 알아볼 수 없지만 해체된 각각의 선과 면이 하나의 조형 요소로서 자유롭게 재구성되어 새로운 조형미를 보여주고 있으며 회화의 율동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⁷¹⁾.

그리고 곡선으로 이루어진 곡면과 둥근 형태가 직선형의 딱딱한 입방체의 형태와 대조적으로 표현 되는 <그림 18>에서는 만돌린을 들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해체하여 면으로 나열한 다음 화면에서 대상을 자유롭게 재구성하여 화면에 새로운 형상의 여인으로 재탄생 시켰다. 각 면을 자유로이 연결하고 새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단색조의 색채가 형의 입체적 분해를 더욱 돋보이게 하였으며, 여성적이고 부드러운 형태미를 표현하고 있다⁷²⁾. 이러한 ‘시각적인 확대’로 대상의 형태는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변형되었고, 만돌린의 현실이 오히려 조형적 재구성의 구실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이는 회화가 현실에 예속된 것이 아니라 자율적 질서를 가진 독자적인 세계임을 주장했던 것이다⁷³⁾.

이처럼 입체주의 화가들의 작품에서는 대상을 여러 시점으로 관찰한 후 점, 선, 면 등 회화의 기본 조형 요소들로 단순하게 분해된 형태들을 한 화면에 다시 나타내는 해체와 재구성을 보여주고 있다⁷⁴⁾. 이 과정에서 회화는 거의 추상에 가까우며 모사보다 해체된 개체들로 나타나는 대상의 시각적 인식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

70) 송아라 (2009), op.cit., p.26.

71) Ibid., p.15.

72) 성필규 (2011), op.cit., p.22.

73) 김순미 (2009), op.cit., p.17.

74) 김주희 (2013), op.cit., p.14.



<그림 16>
Pablo Picasso,
The Accordionist, 1911
(https://en.wikipedia.org/wiki/The_Accordionist
검색 일자: 2023.02.24.)



<그림 17>
Pablo Picasso,
Portrait of
Daniel-Henry
Kahnweiler, 1910
(<https://www.wikiart.org/en/pablo-picasso/portrait-of-daniel-henry-kahnweiler-1910>
검색 일자: 2023.02.24.)



<그림 18>
Pablo Picasso,
Girl with mandolin
(Fanny Tellier), 1910
(<https://www.wikiart.org/en/pablo-picasso/girl-with-mandolin-fanny-tellier-1910>
검색 일자: 2023.02.24.)

5) 사실성

대상의 해체와 재구성의 반복으로 인하여 입체주의 회화작품에서 실제의 파악이 불가능하게 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화면에서 현실 재료인 종이류와 오브제를 붙이는 파피에 콜레, 콜라주 기법을 고안해 냈다. 이 기법은 형태를 그대로 묘사하여 현실감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물 즉, 오브제를 붙임으로써 실제성을 드러내는 방식을 나타낸다.

콜라주를 통해 입체주의는 서양 예술에서 최초로 외형뿐 아니라 인식, 실체, 그리고 본질에서 예술작품이 대사의 현상적 외형에 제한될 필요가 없다는 원리를 구체화시켜 작품에 표현하였다⁷⁵⁾.

피카소는 <그림 19>에서 레몬, 유리, 유리잔, 파이프, 신문 등이 나오는

75) Ibid.

정물화에 등나무 의자가 인쇄된 기름칠 조각을 부착했다. 그리고 다시 그림 전체에 로프를 두르고 실제 신문을 나타내기 위해 문자를 삽입하는 등 실제의 대상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회화적 형을 구축해 나갔다⁷⁶⁾.

이처럼 피카소의 콜라주 기법은 단순히 대상의 외적인 묘사에서 나아가 대상의 본질적인 진실을 표현하고자 한 시도로 평가할 수 있으며, 대상의 실체를 표현함에 있어 사실적 요소 자체를 부착시키는 것이 가장 가까운 방법임을 부인할 수 없게 됨을 뜻한다⁷⁷⁾.

브라크의 정물화 작품인 <그림 20>은 모래를 섞은 물감을 사용한 최초의 작품들 중 하나로 그림에 물감 외에 나뭇결무늬 종이와 모래와 같은 상이한 재료들을 포함시키기 시작함으로써 회화에 새로운 재료적 특질을 부여했다⁷⁸⁾. 또한 'SORG'란 단어를 스텐실 레터링으로 작품에 삽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카소는 <그림 21>에서 자신이 택한 모티프를 오로지 벽지 자투리와 오래되어 누렇게 바랜 포스터만 가지고 구성했다. 여기에 약간 가는 파스텔 선들을 얹어 그림의 공간임을 암시하고 있다. 투입된 소재들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은 복합적이고 풍성한 느낌을 준다⁷⁹⁾.

입체주의의 리얼리즘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성의 시각적인 리얼리즘이 아니라 정신작용에 의해 인식하는 리얼리즘을 말한다. 다시 말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똑같이 그리려는 사실성이 아니라 작가 자신의 내면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실성을 말한다. 이러한 리얼리즘을 추구하는 입체주의 회화 작가들의 목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이상과 모습을 예술로 변형시키는 것이었다⁸⁰⁾. 이와 같이 입체주의의 조형적 특성은 동시성, 도형성, 중첩

76) Ibid., p.12.

77) 김현아 (2017), op.cit., p.14.

78) 안네 간테퀴어-트리어, 김광우 역 (2008), op.cit., p.64.

79) 하요 뒤히팅, 김재욱 역 (2008), op.cit., p.35.

80) 홍주영 (2014), op.cit., p.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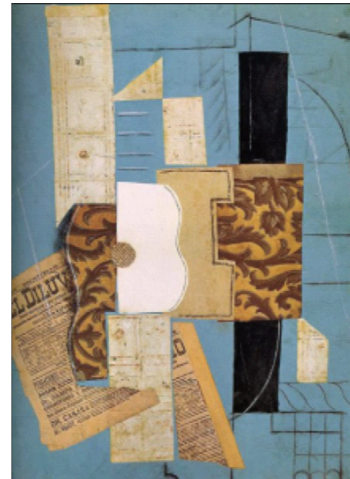
성, 해체와 재구성 그리고 사실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조형적 특성을 표현방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그림 19>
Pablo Picasso,
Still life with caned chair,
1912
(<https://www.wikiart.org/en/pablo-picasso/still-life-with-the-caned-chair-1912>
검색일자: 2023.02.24.)



<그림 20>
Georges Braque, Bowl
of Fruit, Bottle and
Glass, 1912
(안네 간테튀러
트리어, 입체주의, 서울:
마로니에북스, 2008, p.64)



<그림 21>
Pablo Picasso,
The guitar, 1913
(<https://www.wikiart.org/en/pablo-picasso/the-guitar-1913>
검색 일자: 2023.02.24.)

<표 2> 입체주의 회화의 조형적 특성 분석

조형적 특성	표현방법
동시성	-면의 분할과 겹침 -면들 사이의 투명성 -복수 다시점
도형성	-기하학적 형태 -생략, 단순화, 왜곡
중첩성	-면의 전이에 따른 공간의 중첩
해체와 재구성	-해체 후 기하학적 형태로 환원 -재구성
사실성	-콜라주, 파피에콜레

3. 아트메이크업

1) 아트메이크업의 정의

아트메이크업(Art Make-up)이란 예술을 뜻하는 ‘ART’ 와 화장하다를 의미하는 ‘MAKE UP’ 의 합성어로 <미용학 사전>에서는 ‘얼굴 혹은 신체를 바탕으로 각양각색의 장식, 그림, 형태 등을 활용하여 강한 메시지(message)를 전달하는 것’ 이라고 정의한다⁸¹⁾. Siegmund Verlag(1986)에 의하면 아트메이크업은 ‘인체를 재조형한 예술로서 새로운 현상,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로움의 추구, 새로운 현실성 등을 알리는 것이며, 특별한 회화기법으로 인체에 디자인 한 것이다.’ 라고 정의된다⁸²⁾.

81) 한국미용학회 (2003), 「미용학사전」, 서울: 신광출판사, p.573.

82) 천지연 외 5명 (2013), 「아트 & 캐릭터 메이크업= Art & character make up」, 서울: 청구문화사, p.10.

아트메이크업은 마치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처럼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작품도 마찬가지로 의도에 따른 표현에 있어서 다양한 도구와 재료를 이용하여 모델의 얼굴 혹은 신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하여 표현하는 것이다⁸³⁾. 즉, 아트메이크업은 예술성을 추구하는 메이크업으로 표현상의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는 실험적인 조형 예술의 한 장르라 할 수 있다⁸⁴⁾.

아트메이크업은 메이크업의 기능적인 표현을 넘어서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주관적인 생각을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예술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사회적인 특정 목적에 의한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예술적인 측면에서 모방이 아닌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생각(Idea)과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기술(Technique)이 갖추어져야 하며 메이크업 아티스트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주제의 전달 표현 능력이 요구된다⁸⁵⁾.

2) 아트메이크업의 조형요소

아트메이크업은 단순한 작업에서 벗어나 넓게는 조형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작품의 실체를 구성하는 물리적인 요소인 질감, 색, 형태와 그 외의 요소인 시간, 공간, 빛 등이 더해진다⁸⁶⁾. 형식적 요소는 재료에 의해서 구체화되며 무한한 시각적 효과를 만드는데 이용되어 변형될 수도 있어 ‘조형적 요소(Plastic elements)’ 라고도 한다⁸⁷⁾.

아트메이크업 작품제작에 있어 기본이 되는 아트메이크업의 조형요소들을

83) 이화순 외 3명 (2010), 「The Art of Makeup」, 서울: 형설출판사, p.8.

84) 천지연 외 5명 (2013), op.cit., p.10.

85) 신원선, 권태순 (2014), 「아트 메이크업 발상」, 서울: 훈민사, p.10.

86) 김초롱 (2017), op.cit., p.15.

87) 민경우 (1995), 「디자인의 이해」, 서울: 미진사, p.171.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는 조형요소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 및 분석하고, 아트메이크업의 조형요소를 3가지로 분류하여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자 한다.

유정주(2003)⁸⁸⁾는 아트메이크업에 나타난 오브제의 소재에 관한 연구에 있어 아트메이크업의 표현 방법을 형태, 질감, 색채, 디테일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박정신(2008)⁸⁹⁾은 빌플린의 양식 개념을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시각적 표현 형식에 적용하여 분석하고 메이크업 표현요소를 점, 선, 면, 질감 그리고 색채로 분류하였다.

이규리(2012)⁹⁰⁾는 입체주의적 플라쥬 특성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연구에서 아트메이크업에 나타난 디자인 요소를 형, 색채, 질감으로 분류하였다.

장연아(2016)⁹¹⁾는 현대 메이크업 분야에서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유럽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5명의 메이크업 디자인 패턴의 조형적 특징을 중심으로 작품의 독창성과 다양한 표현 기법을 이해하여 조형요소를 질감, 형태, 색상으로 세분화하였다.

최주희(2021)⁹²⁾는 플라톤 이데아론을 바탕으로 아상블라주 기법을 활용한 아트메이크업 작품 제작에 있어 조형요소를 질감, 형태, 색으로 규명하였다.

위 5개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연구에서는 아트메이크업의 조형요소를 <표 3>과 같이 질감, 형태, 색채로 분류하였다.

88) 유정주 (2003), 아트 메이크업에 나타난 오브제의 소재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4.

89) 박정신 (2008), 빌플린의 양식 개념에 의한 메이크업의 시각적 표현형식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2.

90) 이규리 (2012), op.cit., p.36.

91) 장연아 (2016), 현대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메이크업 디자인 조형성 연구, 우송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1.

92) 최주희 (2021), 플라톤 이데아론을 바탕으로 아상블라주 기법을 활용한 아트 메이크업 작품제작,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5.

<표 3> 아트메이크업의 조형요소 선행연구 정리표

선행연구자	아트메이크업의 조형요소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정리
유정주(2003)	형태, 질감, 색채, 디테일링	질감
박정신(2008)	점, 선, 면, 질감, 색채	
이규리(2012)	형, 색채, 질감	형태
장연아(2016)	질감, 형태, 색상	색채
최주희(2021)	질감, 형태, 색	

(1) 질감

질감은 손이나 눈으로 느껴지는 물체 표면의 성질을 말하며 미술에서는 형태나 색채와 마찬가지로 기본 조형 요소의 하나로 작품에 사실감이나 특정한 정서를 부여한다⁹³⁾. 크게 시각적 질감과 촉각적 질감으로 구분되는데 시각적 질감은 감상자들이 보는 그대로를 느끼는 것이다. 시각적인 질감은 부드럽다, 거칠다, 푸석푸석하다, 촉촉하다, 미끈미끈하다 등으로 사용하는 재료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질감 표현이 가능하며 메이크업에서는 주로 피부 표현에 의해 질감이 상이하게 표현된다⁹⁴⁾.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따

93) 두산백과 두피디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040531&cid=40942&categoryId=33048>
 (검색 일자: 2023.02.25.)

94) 김소현 (2018), 메이크업 이미지 디자인 활용을 위한 색채 연구, 서경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9.

라 <그림 22>와 같이 머리 부분은 메마른 땅의 갈라짐을 표현하듯 극적으로 건조한 질감을 연출하고, 얼굴 표면 또한 유분이 없는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매트(Matt)하게 표현될 수 있다⁹⁵⁾. <그림 23>에선 부분적인 광택의 표현이 아닌 얼굴 전체에 막을 씌운 듯한 글로시(Glossy)한 표현으로 얼굴 표면을 유리와 같은 질감으로 형상화 한 것을 볼 수 있다.

그에 반하여 온몸의 피부를 통해서 끊임없이 지각되고 기억되는 촉각적 질감은 느껴지는 촉감을 시각화하여 그 대상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⁹⁶⁾. <그림 24>과 같이 깃털을 사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오브제 들을 활용해서 표현된다. 따라서 다양한 재료의 사용과 도구의 특성을 이용한 표면효과로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다.

질감은 형태, 색채와 함께 시각적인 경험을 풍부하게 해 주는 것으로 작품 디자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작품의 이미지나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⁹⁷⁾.

95) 장연아 (2016), op.cit., p.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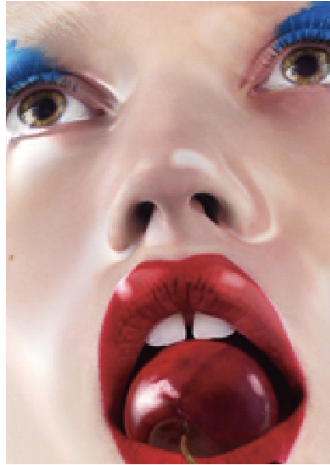
96) 최주희 (2021), op.cit., p.26.

97) 이화순 외 3명 (2010), op.cit., p.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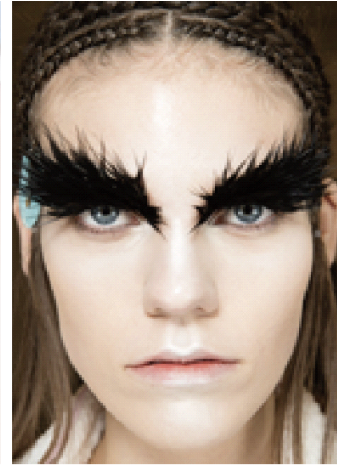
<그림 22>
질감 1

(<https://thealexbox.com/ab0014/>
검색 일자: 2023.03.07.)



<그림 23>
질감 2

(<https://www.beautyscene.net/beauty-shoots/georgia-may-jagger-by-daniel-sannwald-for-garage-f-w-2014/>
검색 일자: 2023.03.07.)



<그림 24>
질감 3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4-ready-to-wear/alexander-mcqueen/slideshow/beauty#5>
검색 일자: 2023.03.07.)

(2) 형태

형태는 물체의 구조나 모양새 그리고 그 전체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 일정하게 이루어진 점, 선, 면의 연장이다. 기본적인 뷰티 메이크업에서 보이는 조형 요소로의 형태는 대상의 안면 대칭의 구조를 맞추고, 얼굴은 균형의 조화를 이룬다⁹⁸⁾. 반면 아트메이크업에서의 조형 요소의 형태는 점, 선, 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회화적인 요소들을 더하기도 하고, 과장된 형태의 실루엣을 재현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 본래 얼굴에 사용되어야만 한다고 규정됐던 재료들이 아티스트에 따라 인체에 무해한 범위 안에서 재해석될 수 있다⁹⁹⁾.

형태는 크게 점과 선,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타고라스학파에 의하면 점

98) 최주희 (2021), op.cit., p.28.

99) Ibid.

은 ‘그 이상 분할 할 수 없고 위치만 가진 것’으로 정의되어 형태를 지각하는 최소의 단위로서 위치만을 나타낸다. 점은 크기와 명암에 따라 성질이 달라지는데 메이크업에서는 크기에 따른 아주 미세한 변화에 의해서 의도되고 있는 다양성과 복잡성을 갖고 있어 메이크업이 표현하는 데 영향을 주며 포인트로 사용한다¹⁰⁰).

선은 무수한 점의 집합으로 넓이나 깊이는 없고 길이와 방향을 나타내며 면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된다¹⁰¹). 얼굴에서의 선은 아이브로우와 아이라인, 립라인 등에 표현되고 그 모양에 따라 이미지가 다르게 보이며 아트메이크업에서는 선의 진하기와 곡선, 직선의 분위기로 객체의 이미지가 형성된다¹⁰²). 보통 직선은 세련되고 개성적인 이미지를 주며 곡선은 부드러워 여성스러운 느낌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¹⁰³).

면은 2차원적인 요소로 점의 확대나 선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으로 넓이는 존재하지만, 두께는 없다¹⁰⁴). 얼굴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아이섀도나 얼굴 윤곽(블러셔, 하이라이트, 셰이딩), 립의 표현 등이 면의 구성력을 갖는다¹⁰⁵). 면이 주는 표현 효과는 평면과 곡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면을 구성하며 직선, 곡선 각각의 성격을 나타내거나 형태의 방향성에 의해 종합적으로 보여진다¹⁰⁶). 아트메이크업에서의 면은 입체를 생성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되며 아트메이크업에서는 면을 질감, 원근감, 색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아트메이크업에서의 형태는 위의 점, 선, 면을 기초로 <그림 25>과 같이 얼굴의 윤곽이나 형태를 무시하고 추상적인 형태를 그려 패턴화하

100) 장연아 (2016), op.cit., p.13.

101) 김양은 외 3명 (2009), 「아트 메이크업」, 파주: 광문각, p.36.

102) 최주희 (2021), op.cit., p.28.

103) 장연아 (2016), op.cit., p.13.

104) 김양은 외 3명 (2009), op.cit., p.37.

105) 장연아 (2016), op.cit., p.14.

106) 천지연 외 5명 (2013), op.cit., p.49.

여 회화적인 연출을 시도하거나 <그림 26>처럼 본래의 얼굴을 살린 메이크업을 하는 것을 벗어나 얼굴을 캔버스화하여 선이 부각된 느낌의 형태를 강조한다. 또한, 보형물을 이용하여 <그림 27>처럼 특정 부위의 형태만을 과장되게 표현하기 위해 실제 대상을 비현실적으로 변형하기도 한다.



<그림 25>
형태 1

(<https://www.pinterest.co.kr/pin/602215781444258292/>
검색 일자: 2023.03.08.)



<그림 26>
형태 2

(<https://www.pinterest.co.kr/pin/602215781444258244/>
검색 일자: 2023.03.08.)



<그림 27>
형태 3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0-ready-to-wear/alexander-mcqueen/slideshow/beauty#1>
검색 일자: 2023.03.08.)

(3) 색채

색은 물리적인 사물의 외관을 변화하는 착시현상을 만드는 것으로 뇌에서는 색을 인지함과 동시에 지각하는 과정을 거쳐 개인의 견해와 경험에 따라 여러 가지 연상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색채가 일종의 의사소통의 기능이 있음을 뜻한다. 색의 이러한 언어적 기능성은 색이 감성적인 미를 구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색에서 받은 인상은 색에 따라 다르며 그에 따른 감정도 다양하다. 따라서 색상과 색채가 가지는 상징적 이미지에

따라 메이크업에 많은 변화와 특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메이크업의 색채로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¹⁰⁷⁾.

일반적으로 뷰티 메이크업에서의 색채 사용은 사회관념에 따른 한계로 사용되는 예상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아트메이크업에서의 색채는 제한적인 색채의 범위를 벗어나 선택의 폭이 넓어 근본적인 의미를 다양하게 표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또한, 극도로 색채를 제한하는 등의 적절한 조화와 대비를 <그림 28>에서 볼 수 있듯이 보색을 사용하여 강조하는 배색으로 새로운 시각 효과를 보여줌으로써¹⁰⁸⁾ 전달하고자 하는 메이크업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적절한 효과를 준다.

<그림 29>에서 빨간색은 매혹적으로 느껴지지만 <그림 30>에서의 검정색과 혼합된 빨간색은 강렬하고 공포스러운 느낌을 준다.

즉, 특정한 색채의 배합은 또 다른 시각적인 효과를 만들고 그 배합에 따라 전혀 다른 메이크업 이미지가 연출되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디자인 할 때 색채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¹⁰⁹⁾. 따라서 색채는 가장 흥미로운 시각적 요소일 뿐 아니라 다양한 색채 표현 및 명도, 채도의 변화에 따라 다른 조형 요소보다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¹¹⁰⁾.

그러므로 여느 미술작품과 마찬가지로 아트메이크업은 색채를 통하여 단지 캔버스가 아닌 인체 표면에 아티스트의 내면세계 또는 특정 이미지를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07) 송미영 (2006), 얼굴의 형태적 특성과 메이크업에 따른 얼굴 이미지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4.

108) 이승주 (2005),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 트렌드 이미지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7.

109) 김소현 (2018), op.cit., p.7.

110) 변영희 (2003), 현대 메이크업에 표현된 추(醜) 이미지에 관한 연구: 색채 표현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3.



<그림 28>
색채 1

(<https://www.pinterest.ca/pin/382665299558591454/>
검색 일자: 2023.03.09.)



<그림 29>
색채 2

(<https://www.pinterest.co.kr/pin/315744623888743339/>
검색 일자: 2023.03.09.)



<그림 30>
색채 3

(<https://www.pinterest.co.kr/pin/602215781445002736/>
검색 일자: 2023.03.09.)

3) 아트메이크업의 표현기법

아트메이크업은 작가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예술적인 메이크업으로,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작가의 내면적인 영혼을 표현하는 흥미로운 예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아트메이크업의 표현은 현대사회에 이르러 여러 가지 방법과 도구, 재료의 발전으로 표현의 다양성이 더욱 확대 되고 있다¹¹¹⁾.

본 연구에서는 현대 아트메이크업에 사용되는 표현 기법으로 회화적 기법, 에어브러시 기법, 오브제 활용 기법, 스텐실 기법, 디지털 미디어 기법의 5가지로 분류하였다.

111) 채송화 (2018), op.cit., p.58.

(1) 회화적 기법

여러 가지 회화적 요소를 이용한 기법으로 아트메이크업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다양한 색채와 여러 가지 표현방식을 회화작품을 통해 화가가 본인의 의식과 감성을 전달하는 것과 같이 작품으로 본인의 예술세계를 전달할 수 있는 예술성을 갖게 해준다¹¹²⁾. 주로 사실적 묘사와 추상적 묘사, 그래픽적인 묘사 등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¹¹³⁾ 다양한 색채의 사용과 여러 가지 디자인 표현이 가능하다. 자연물을 주제로 하거나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추상적으로 형상화해 작품을 통해 작가의 영감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메시지 전달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¹¹⁴⁾.

표현 방법으로는 회화적 페인팅 기법, 액션페인팅 기법, 디지털 페인팅 기법이 주로 사용된다. 회화적인 표현 기법의 특징은 유성과 수성 컬러 물감, 파운데이션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¹¹⁵⁾ <그림 31>처럼 정밀 묘사 등의 회화적 요소를 이용하거나 <그림 32>와 같이 물감을 뿌린 듯한 액션페인팅의 우연적 요소를 이용하여 주제를 전달하고 표현한다는 점이다¹¹⁶⁾.

112) 박성경 (2017), 미니멀아트의 특성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작품제작,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9.

113) 채송화 (2018), op.cit., p.58.

114) 이규리 (2012), op.cit., p.47.

115) 채송화 (2018), op.cit., pp.60-61.

116) 김연아 (2015), 바디아트퍼포먼스와 메블로퐁티 몸 형상학의 상호작용 관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1.



<그림 31>
회화적기법 1

(<https://www.pinterest.ca/pin/466896686375186332/>
검색 일자: 2023.03.15.)



<그림 32>
회화적기법 2

(<https://thetattooedgeisha.wordpress.com/2014/01/19/painted-faces/>
검색 일자: 2023.03.15.)

(2) 에어브러시 기법

압축된 일정한 공기를 만드는 컴프레서(Compressor)와 에어건을 연결하여 액체 상태의 물감을 밀어내어 분사시키는 스프레이 형식의 채색 방식으로¹¹⁷⁾ 현재 디자인 분야나 현대회화, 네일아트, 특수분장, 바디페인팅뿐만 아니라 뷰티 메이크업에서도 사용되는 기법이다¹¹⁸⁾. 에어브러시 기법은 물감을 일정하게 분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실현할 수 있고 대상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붓을 사용하는 기법과 달리 <그림 33>, <그림 34>에서 나타나듯이 섬세하고 정교한 선 처리와 자연스러운 음영, 매끄러운 그라데이션, 명암의 대비를 표현하기에 용이하다. 또한, 스텐실을 사용한 다양한 패턴 또한 만들어 낼 수가 있어 완성도 있는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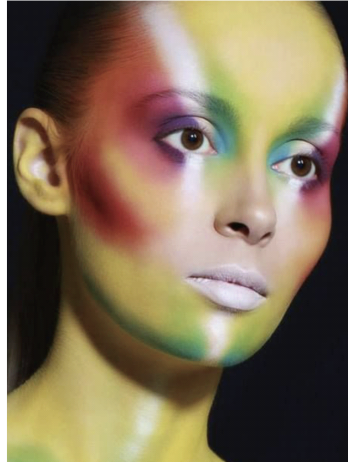
117) 김수빈 (2020), 엔트로피를 응용한 바디아트 작품 제작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31.

118) 채송화 (2018), op.cit., p.61.

와 반복적 표현을 쉽게 할 수 있으며, 작업시간의 단축과 많은 양의 작업도 쉽게 해 낼 수 있고, 동일한 패턴이나 그림을 반복적으로 표현 할 경우에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스피드한 메이크업을 요구하는 패션쇼 메이크업에서도 그 활용도가 높아졌다¹¹⁹⁾.



<그림 33>
에어브러시 기법1
(<https://thealexbox.com/archive>
검색 일자: 2023.03.15.)



<그림 34>
에어브러시 기법 2
(<https://www.pinterest.co.kr/pin/602215781444300742/>
검색 일자: 2023.03.15.)

(3) 오브제 활용 기법

미술의 사전적 정의로서 오브제는 작품에 쓴 일상생활 용품이나 자연물 또는 예술과 무관한 물건을 작품에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느낌을 일으키는 상징적인 기능의 물체를 뜻한다¹²⁰⁾. 주로 자연물과 인공물이 재료가 되는데 자연물은 석고, 머드, 식물, 깃털 등 자연에서 추출하는 재료로 사용되며, 인

119) 신원선, 권태순 (2014), op.cit., p.22.

120)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b0a7912519f547e6915c098a28d96c0a>
(검색 일자: 2023.03.15.)

공물은 스펅글, 비즈, 스톤, 패브릭, 알루미늄, 금속, 종이, 펄 글리터 등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물건을 일컫는다¹²¹⁾. 따라서 오브제 기법이란 기법이나 재료의 제한을 없애고 일상의 사물에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여 새로운 조형 개념을 형성하는 것을 뜻한다¹²²⁾.

아트메이크업에서 오브제 기법은 단순히 신체에 그림을 그리고 칠하는 것을 넘어서 메이크업 재료 외의 다양한 소재들을 활용해 조형성을 표현하는 방법을 가리키는데¹²³⁾ 이는 작품의 재료, 형식, 기능을 확대하여 풍부한 효과를 제시하면서 조형성을 가미하고, 새로운 흥미를 유발해 예술성을 높여 주는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있다¹²⁴⁾. 또한, 소재에 대한 고정 관념을 탈피하게 하였으며 소재의 확장은 독특하고 다양한 아트메이크업 디자인에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¹²⁵⁾. 특히 질감(Texture) 표현을 위해 많이 사용되는데, 실제 물체의 표면이 갖는 특성이나 안료의 성질, 물적 대상의 양감 등을 촉각, 시각적으로 환기하는 효과를 위해 사용된다¹²⁶⁾.

오브제 활용기법은 단순하게 그리는 기법이 아닌 인체나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춰 <그림 35>와 같이 물체를 덧붙여 만드는 조형적인 느낌의 작품으로 질감을 표현할 수 있다¹²⁷⁾. 또한 <그림 36>에서 볼 수 있듯이 마스크를 제작하여 인체와 결합하여 입체적이고 예술적 요소를 부각하는 형태로 나타낸다.

오브제는 개별적인 소재로도 이용할 수 있지만 그룹으로 사용하여 다른 형태를 만들기도 하며, 소재 자체를 변형시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할 수도 있다¹²⁸⁾. 회화적 기법, 스텐실 기법, 에어브러시 기법 등 기본적인 아트메이

121) 신원선, 권태순 (2014), op.cit., p.24.

122) 최주희 (2021), op.cit., p.34.

123) 채송화 (2018), op.cit., p.63.

124) 유정주 (2003), op.cit., p.27.

125) Ibid., p.32.

126) 채송화 (2018), op.cit., p.63.

127) 최주희 (2021), op.cit., p.35.

128) 채송화 (2018), op.cit., p.63.

크업 작업 후에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사물을 인체에 고정하는 식으로도 표현된다¹²⁹⁾.

이처럼 아트메이크업에서 오브제 기법은 소재의 확장을 가지고 왔으며 폭 넓고 다양한 패턴과 작품의 재료 및 기법 등을 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표현의 범위를 넓혀 보다 창조적인 이미지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기법이다¹³⁰⁾.



<그림 35>

오브제 활용 기법 1

(<https://www.essentialhommemag.com/lcm-backstage-agi-sam-autumnwinter-2015/>
검색 일자: 2023.03.16.)



<그림 36>

오브제 활용 기법 2

(<https://www.vogue.co.uk/gallery/spring-summer-2015-backstage-model-diary>
검색 일자: 2023.03.16.)

(4) 스텐실 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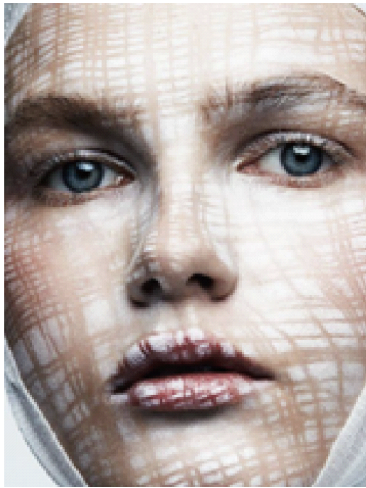
스텐실은 공판화의 한 기법으로 주로 직물 염색이나 상업디자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표현하고자 하는 문양을 종이나 투명한 필름 등에 그려서 이를 오리거나 차단하여 면에 뚫린 구멍 부분으로 물감을 넣으면 막힌 부분은 도안 모양이 그대로 남게 되고 뚫린 부분에만 잉크가 찍히게 되는 원리

129) 채송화 (2018), op.cit., p.64.

130) 김수빈 (2020), op.cit., p.32.

이다¹³¹). 표현하고자 하는 부위에 도안을 밀착시켜 에어브러시나 스펀지를 활용할 수도 있으며, 여러 가지 패턴을 연출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¹³²).

<그림 37>과 같이 레이스나 망사류 등을 사용해서 얼굴이나 신체에 찍어 주게 되면 손으로는 그릴 수 없는 자로 잰 듯한 아트메이크업을 추상적인 이미지로도 연출할 수 있다. 원하는 문양을 디자인하여 신체에 부착하고 그 위에 컬러를 채우고 디자인한 문양을 떼어 내면 <그림 38>과 같은 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다. 이는 손으로 그리는 것보다 빠르게 깔끔한 문양을 표현할 수 있으며 판화와 같이 많은 작품을 대량생산할 때 가능하다.



<그림 37>
스텐실 기법 1

(<https://leah-cultice.tumblr.com/post/151098685460/aneta-pajak-by-ben-hassett-for-vo-gue-paris-october>
검색 일자: 2023.03.18.)



<그림 38>
스텐실 기법 2

(<https://www.maxinetall.com/portfolio/mak-eup/540821/paul-innis/beauty-specialty>
검색 일자: 2023.03.18.)

131) 채송화 (2018), op.cit., p.62.

132) 장현희 (2007), 스텐실 기법을 활용한 염색공예 수업연구: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

(5) 디지털 미디어 기법

디지털아트는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만들어지는 회화, 조각, 순수 사진, 시각예술, 설치미술 등을 포함하는 예술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컴퓨터 기술이 핵심이 된다. 디지털아트의 한 형태인 디지털 페인팅은 2, 3차원의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를 창출하여 정지된 화상의 미적 개념을 다룬다¹³³⁾.

<그림 39>와 <그림 40>은 컴퓨터 그래픽스 응용 프로그램 중 포토샵을 이용하여 인물의 이미지를 목적에 맞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포토샵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그림 방식의 페인팅(Painting) 작품이다. 색채의 조절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부분의 제거와 신체적인 결점을 수정 보완하여 섬세하면서도 완성도 있는 작품으로 표현하였다¹³⁴⁾.

포토샵은 미국 어도비(Adobe)사가 개발한 그래픽 소프트웨어로 컴퓨터로 입력된 화상에 대하여 다양한 편집과 수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써, 사진 이미지의 색상 보정, 오래된 사진 복원, 이미지 합성, 문자 디자인, 인쇄물 디자인, 웹 디자인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또한 3D 컴퓨터 그래픽과 다양한 패널 이미지, 새로운 질감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하여 왔다. 포토샵 기능을 활용한 기법은 다양한 아이디어의 적용과 수정, 변형이 자유로우며 결과물을 예측함으로써 의도에 부합하는 정확한 디자인은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¹³⁵⁾. 다양한 표현으로 새로운 시각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¹³⁶⁾.

133) 박친신 (2008), 「디지털 아트&디지털 페인팅」, 서울:한언, p.16.

134) 이규리 (2012), op.cit., p.49.

135) 신원선, 권태순 (2014), op.cit., pp.28-29.

136) Ibid., p.30.



<그림 39>
디지털 미디어 기법 1
(<https://thealexbox.com/archive>
검색 일자: 2023.03.18.)



<그림 40>
디지털 미디어 기법 2
([https://www.behance.net/gallery/56506821/
Magazine-covers?tracking_source=curated_
galleries_list](https://www.behance.net/gallery/56506821/Magazine-covers?tracking_source=curated_galleries_list)
검색 일자: 2023.03.18.)

Ⅲ. 작품제작

1. 제작의도

우리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사회·문화적으로 만들어진 편견, 습관, 전통 등에 빠져 살게 된다. 그리고 한 번 고정된 생각은 변하기 쉽지 않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이 실제로도 옳다고 믿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옳다고 믿고 있는 것들은 사실이 아닌 것이 많다.

존 버거(John Berger)는 우리들이 사물을 보는 방식은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또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깊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다¹³⁷⁾. 여기서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입된 사회·문화적 관념들을 말한다.

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현대인들은 앞서 그가 말한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 즉 재생산된 시각에 과도하게 노출되며 쉽게 그것들을 접한다. ‘특정 집단에 대한 미디어의 표현이 고정관념을 형성한다’¹³⁸⁾고 Richardson이 지적한 것처럼 미디어에 노출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기준을 무의식적으로 추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고정관념, 기준, 틀’과 같은 공통된 키워드에 대한 연구자의 생각을 총 8개의 작품을 통해 각기 다르게 표현하였다. 작품 속 오브제와 사용된 색상, 구도 등을 통해 연구자가 생각하는 편견으로 벗어나 감상자들이 자기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고 탐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입체주의 작가들은 사람이나 사물의 외면과 내면을 동시에 표현하고자 했다. 원근법과 명암법 등 기존 회화 법칙을 모조리 해체하고 자신만의 독창

137) 존 버거, 하태진 역 (1995),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 현대미술사, p.1.

138) Richardson, N (2010), *Transgressive Bodies: Representations in Film and Popular Culture*, Farnham: Ashgate Publishing Group, p.3.

적인 화법을 만들어 낸 입체주의 화가들의 표현 기법은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 새로운 시도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입체주의 회화는 연구자의 주제를 감상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다.

입체주의 회화의 조형적 특성 관련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조형적 특성을 동시성, 도형성, 중첩성, 해체와 재구성, 사실성 5가지로 분류하고 연구자의 주제를 아트메이크업 표현기법을 적용해 미학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동시성을 표현한 작품 2점, 도형성을 표현한 작품 2점, 중첩성을 표현한 작품 1점, 해체와 재구성을 표현한 작품 2점, 사실성을 표현한 작품 1점, 총 8점의 아트메이크업 작품을 제작하여 감상자에게 아트메이크업의 새로운 시도와 모색에 적극적인 물음을 던지고자 하며 작품을 통해 능동적이고 폭넓은 아름다움을 경험하기를 바란다. 입체주의의 조형적 특성을 활용한 아트메이크업 디자인 계획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아트메이크업 디자인 계획

구분	작품 I	작품 II	작품 III	작품 IV	작품 V	작품 VI	작품 VII	작품 VIII
작품명	Persona:ality	Over There	Odd Eye	Fragments on the face	Flow	Pieces of Me	Camouflage	Illusion
입체주의 조형적 특성	동시성	동시성	도형성	도형성	중첩성	해체와 재구성	해체와 재구성	사실성
표현기법	오브제 활용, 디지털 미디어 기법	회화적, 디지털 미디어 기법	회화적 기법	회화적, 디지털 미디어 기법	회화적, 에어브러시 기법	오브제 활용 기법	회화적 기법	오브제 활용 기법
재료	리퀴드 파운데이션, 파우더, 립스틱	리퀴드 파운데이션, 파우더, 아쿠아컬러, 립스틱	리퀴드 파운데이션, 파우더, 아쿠아컬러, 립스틱	리퀴드 파운데이션, 파우더, 색연필, 트레이싱페이퍼	리퀴드 파운데이션, 아이섀도우, 에어브러시 물감, 에어브러시	리퀴드 파운데이션, 파우더, 젤 아이라이너, 립스틱	리퀴드 파운데이션, 파우더, 아이섀도우, 아쿠아컬러	리퀴드 파운데이션, 파우더, 색지
컬러								
일러스트								
작품								

2. 작품 설명 및 제작 과정

1) 작품 I - Personality

조형적 특성: 동시성

표현 기법: 오브제 활용 기법, 디지털 미디어 기법

(1) 작품설명

작품 I 은 입체주의의 조형적 특성 중 동시성을 응용하여 사회적 자아인 페르소나를 표현한다. 페르소나는 인간의 가장 외적인 ‘인격의 가면’이다. 사회적 자아로서 개인의 페르소나는 사회적 역할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¹³⁹⁾.

제목에 쓰인 쌍반점은 일반적으로 문장 중간에 표시하여 문장의 경계를 표시하는 역할을 한다. 연구자는 ‘Persona’ 와 ‘Personality’ 두 단어의 경계에 쌍반점을 사용해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집단정신에 동화된 모습이 본인 자신의 실제 성격(Personality)으로 오인하고¹⁴⁰⁾ 착각하게 된다는 메시지를 함축하여 표현하였다.

입체주의 작가들이 정면, 측면, 위쪽에서 본 모든 관점을 병치하는 동시에 대상을 분석적으로 묘사한 것처럼 연구자는 페르소나라는 가면으로 가려진 현대인의 모습을 다각도로 표현하였고 아트메이크업의 조형 요소 중 형태의 변형을 통해 이미지를 제작하였다.

139) 이부영 (1978), 「분석심리학」, 서울: 일조각, pp.82-83.

140) 김소정 (2018), 「파편화된 여성 신체 이미지 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61.



말 그대로 다양한 각도에서 시각에 변화를 주어 바라보는 것으로 감상자가 고정관념의 틀을 깨어 보기를 바란다. 작품 I의 디자인과 구성내용은 <표 5>와 같다.

(2) 제작 과정

작품 I의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모델의 피부톤에 맞춰 베이스 메이크업을 한다.
- ② 얼굴의 음영감을 주고 전체적으로 파우더 처리를 한다.
- ③ 눈썹은 결만 다듬어 네추럴하게 표현한다.
- ④ 립 컬러는 자연스러운 누드톤으로 발라준다.
- ⑤ 모델의 얼굴 윤곽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헤어는 깔끔하게 포니테일로 연출한다.
- ⑥ 앞, 뒤, 옆, 위 등 다양한 각도로 얼굴의 전체적인 면을 촬영한다.
- ⑦ Adobe Photoshop 2020을 사용하여 이미지의 전체적인 톤을 조절한다.
- ⑧ 촬영한 여러 이미지를 Adobe Photoshop 2020에서 콜라주 작업한다.

<표 5> 작품 I 디자인과 구성내용

디자인표	
작품명	Persona:lity
조형적 특성	동시성
표현기법	오브제 활용 기법, 디지털 미디어 기법
재료	리퀴드 파운데이션, 파우더, 립스틱
색상	
일러스트	디자인
	



<그림 41>
작품 I - Personality

2) 작품 II - Over There

조형적 특성: 동시성

표현 기법: 회화적 기법, 디지털 미디어 기법

(1) 작품설명

사람은 누구나 본인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의 아름다움을 내재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고정된 테두리나 기준으로 인해 의식하지 못하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탐구하지 않아 그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기도 한다. 연구자는 <그림 42>의 작품 II를 통해 나만의 고유한 무언가를 찾기 위해 ‘나’에 대한 의문을 끊임없이 던져보자는 메시지를 담고자 했다.

입체주의 화가들은 동시성 즉, 시점의 복수화를 통해 대상의 참모습을 파악하기 위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도 현실에 존재하는 화면에 실현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오랜 관습과 전통에 대한 혁명이었으며 새로운 미를 구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연구자 또한 감상자들이 본인의 참모습을 찾기를 바라며 <그림 9>와 같이 한 얼굴에 다른 시점의 얼굴이 동시에 나타나도록 이미지를 제작하였다. 베이스가 되는 이미지와 합성된 이미지는 각기 다른 시점으로 촬영하여 동시성의 특성을 응용하였다. 아트메이크업의 조형 요소 중 색채를 강조하여 디자인하였으며 아이 메이크업과 립 메이크업의 컬러감을 강조하기 위해 피부 표현은 화이트 컬러로 선택하였다. 아이 메이크업은 비비드톤(Vivid tone)의 블루 컬러를 사용하고 그와 대조적으로 입술에는 레드 컬러를 사용하여 성질이 다른 한색과 난색으로 배색함으로써 대비감을 주었다. 또한, 피부의 질감은 매트하게 연출하였으며 그와 대비되도록 아이 메이크업은 필감

이 느껴지는 새도우를 사용하고, 립 메이크업은 글로시한 립스틱을 발라 질감의 차이를 주었다.

이미지의 몰입력을 위해 라이트 셰이퍼(Light shaper)를 사용해 일부의 빛만 얼굴에 떨어지게 하였고,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둡게 표현된 부분의 채도를 낮춰 흑백 톤으로 처리함으로써 감상자의 시선이 머무를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시선이 집중되는 부분은 스포트라이트를 연상시키면서 사회적으로 보여지고, 보여지고 싶은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반대로 흑백 톤으로 표현된 부분은 아직 발견되지 못한 우리의 숨겨진 참모습이다. 이러한 색채의 대비는 아직 존재는 하나 발견하지 못한 나의 무한한 아름다움과 남의 시선을 의식하여 보여지기위한 모습을 대조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작품 II의 디자인과 구성내용은 <표 6>과 같다.

(2) 제작 과정




작품 II의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화이트 컬러의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여 컬러가 얼굴전체에 고르게 발리도록 베이스 메이크업을 한다.
- ② 유분기를 제거하기 위해 투명파우더를 사용해 전체적으로 파우더 처리를 한다.
- ③ 눈에 비비드톤(Vivid tone)의 블루컬러의 아이새도우를 발라준다.
- ④ 립은 약간 광택감이 있는 질감의 비비드톤(Vivid tone)의 레드컬러로 발라준다.
- ⑤ 라이트 셰이퍼(Light shaper)를 이용해 얼굴에 빛이 떨어질 부분을 맞춘 후 여러 각도로 촬영한다.
- ⑥ 촬영된 이미지 중 측면의 이미지를 선택해 Adobe Photoshop 2020을 이

용해 빛이 없는 부분은 흑백 처리하고 톤을 조절한다.

- ⑦ ⑥에서 톤 보정을 한 측면 이미지에 다각도로 촬영한 이미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합성한다.
- ⑧ 합성된 이미지에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고 자연스럽게 합성될 수 있도록 투명도를 조절한다.

<표 6> 작품 II 디자인과 구성 내용

디자인표	
작품명	Over There
조형적 특성	동시성
표현기법	회화적 기법, 디지털 미디어 기법
재료	리퀴드 파운데이션, 파우더, 아쿠아컬러, 립스틱
색상	
일러스트	디자인
	



<그림 42>
작품 II - Over There

3) 작품 III - Odd Eye

조형적 특성: 도형성

표현 기법: 회화적 기법

(1) 작품 설명

오드아이(Odd eye)는 양쪽 눈의 색깔이 다른 ‘홍채 이색증(Heterochromia iridum)’을 말한다¹⁴¹⁾. 오드(Odd)는 이상한, 특이한, 외딴의 라는 뜻으로 오드아이는 이상한 눈, 짝눈이라고 해석된다. 단어의 뜻으로 유추해 보아도 오드아이는 정상적 범주가 아닌 특이한 신체 현상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희귀한 유전적 특징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 마땅하며 다르기 때문에 더욱 신비롭고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작품을 통해 ‘다름은 틀림이 아닌 특별함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았으며 시각적으로 강렬함을 유발하고자 하였다.

작품 III에서는 연구자가 감상자에게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입체주의의 조형적 특성인 도형성을 활용하여 제작하였다. 입체주의 작가들이 대상의 외관보다 내적 구조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하여 실체를 기하학적 형태로 환원한 것과 같이 연구자 또한 ‘선’이라는 형태를 통해 본질적인 것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여러 기하학적 형태 중 단순히 선만을 사용하여 디자인하였는데 이는 「기초 디자인」의 저자 데이비드 라우어가 “선은 표현을 위한 매우 풍부한 수단으로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모든 정서나 분위기를 나타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¹⁴²⁾라고 언급한 것처럼 선의 특성을 이용해 이

141)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668833&cid=43667&categoryId=43667>

(검색 일자: 2023.03.15.)

142) 한석우 (1991), 「입체조형」, 서울: 미진사, p.51.

미지가 단순해 보일지라도 감상자들이 풍부한 분위기를 느끼기를 의도하여 단일 형태로만 디자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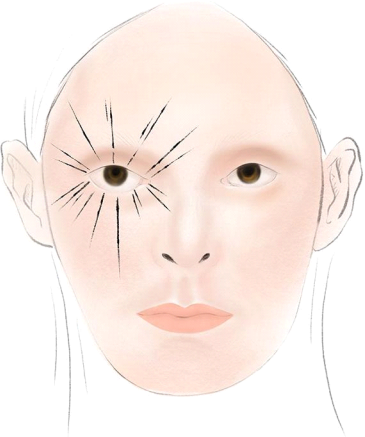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한쪽 눈의 영역만 메이크업함으로써 안정감을 느끼는 균형감에서 벗어나고자 하였고 고유의 비례관계를 깨트려 강조된 형태를 볼 수 있다. 블랙 컬러로 그려진 선은 속눈썹을 기하학적 형태로 환원한 것이며 직선은 방사되듯이 구성하여 방향성과 운동성을 나타내었다. 립 메이크업 또한 내추럴한 누트 톤으로 채색하여 감상자들의 시선이 아이 메이크업으로 주목되도록 유도하여 표현 의도를 더욱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작품 Ⅲ의 디자인과 구성내용은 <표 7>과 같다.

(2) 제작 과정

작품 Ⅲ의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모델의 피부 톤에 맞춰 베이스 메이크업을 한다.
- ② 얼굴의 음영감을 주고 전체적으로 파우더 처리를 한다.
- ③ 눈썹은 결만 다듬어 주고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 ④ 입술색은 자연스러운 누드톤으로 발라준다.
- ⑤ 블랙 아쿠아 컬러를 사용해 왼쪽 눈을 포인트로 방사형의 불규칙한 선들을 그려준다.
- ⑥ 조명의 위치를 조절하여 모델 얼굴의 윤곽과 골격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한다.
- ⑦ Adobe Photoshop 2020을 사용하여 이미지의 전체적인 톤을 맞춰준다.

<표 7> 작품 III 디자인과 구성내용

디자인표	
작품명	Odd Eye
조형적 특성	도형성
표현기법	회화적 기법
재료	리퀴드 파운데이션, 파우더, 아쿠아컬러, 립스틱
색상	
일러스트	디자인
	



<그림 43>
작품 III - Odd Eye

4) 작품 IV - Fragments on the face

조형적 특성: 도형성

표현 기법: 회화적 기법, 디지털 미디어 기법

(1) 작품설명

우리는 한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방법에 길들여져 있으며 종종 본질을 간과하고 눈으로 확인된 것만을 쫓는다. 작품 IV는 고정적이고 단편적인 껍데기에 갇혀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내면의 다양함의 존재를 표현한 작품이다.

입체주의 회화 작가들이 표현대상을 강조하거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기하학적 형태로 생략하고 단순화시켜 표현한 것처럼 입체주의의 조형적 특성 중 도형성을 응용해 작품의 대상을 있는 그대로의 형상이 아닌 기하학적 형태로 표현하였다.

연구자는 직선과 다양한 모양의 삼각형, 사각형으로 화면을 구성하였다. 기하학적인 형태들은 작품 속 인물의 얼굴에 새긴 문신같이 보이기도 한다. 도형들이 반복적으로 나열되고 그로 인하여 시각적 형태를 구성하고 있다.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도형들은 같은 모양 하나없이 다른 크기, 다른 각도, 다른 색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내면의 다양함을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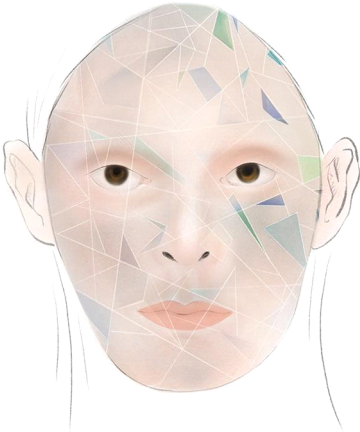

다양함과 대조적으로 단편적인 모습을 효과적으로 이미지화하기 위해 작품 속 인물은 한 방향만을 응시하는 모습을 하고 있으며, 측면으로 촬영하여 평면적으로 연출하였다. 작품 IV의 디자인과 구성 내용은 <표 8>과 같다.

(2) 제작 과정

작품 IV의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모델의 피부 톤에 맞춰 베이스 메이크업을 한다.
- ② 자연스럽게 음영감을 주고 전체적으로 파우더 처리를 한다.
- ③ 눈썹은 결만 다듬어서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 ④ 립 컬러는 자연스러운 누드톤으로 발라준다.
- ⑤ 얼굴의 측면을 촬영한다.
- ⑥ 트레이싱페이퍼에 흰색 색연필을 이용하여 불규칙한 도형을 그린다.
- ⑦ 도형 중 일부분을 색연필로 채색한다.
- ⑧ 완성된 트레이싱페이퍼를 촬영한다.
- ⑨ Adobe Photoshop 2020을 사용하여 촬영된 모델 이미지의 전체적인 톤을 흑백으로 처리한다.
- ⑩ Adobe Photoshop 2020을 사용하여 흑백 톤의 모델 이미지 위에 촬영한 트레이싱페이퍼 이미지를 겹치고 트레이싱페이퍼 이미지의 투명도를 조절하여 두 이미지가 잘 겹치도록 한다.
- ⑪ 트레이싱페이퍼 이미지의 일부분을 확대하여 얼굴의 골격과 맞추고 나머지는 삭제한다.
- ⑫ 모델의 이미지와 트레이싱페이퍼가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이목구비를 선명하게 해준다.

<표 8> 작품 IV 디자인과 구성내용

디자인표	
작품명	Fragments on the face
조형적 특성	도형성
표현기법	회화적 기법, 디지털 미디어 기법
재료	리퀴드 파운데이션, 파우더, 색연필, 트레이싱 페이퍼
색상	
일러스트	디자인
	



<그림 44>
작품 IV - Fragments on the face

5) 작품 V - Flow

조형적 특성: 중첩성

표현 기법: 회화적 기법, 에어브러시 기법

(1) 작품설명

심리학에서 ‘Flow’는 무언가에 흠뻑 빠져 심취해 있는 무아지경의 상태¹⁴³⁾를 말한다. <그림 45>에서 인물은 눈을 감아 외부의 시선과 차단된 모습으로 타인과의 시각적 소통이 단절된 채 주체성을 찾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입체주의의 조형적 특성 중 중첩성을 활용하였으며 얼굴의 이목구비는 색채에 묻히도록 하였다. 색채의 표현요소를 반복하여 채색함으로써 색이 중첩되고 겹쳐지면서 그 깊이는 작품 속에 내포되어있는 본질을 더욱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다양한 색채의 반복에 의한 불명료한 형식은 자아가 주체성을 찾아가는 한 과정이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유동적인 선들과 추상적인 면들이 패턴화되어 리듬감을 생성하고 시각적인 힘의 강약 효과와 함께 풍부함을 더하고자 했다. 비비드 톤(Vivid tone)의 레드와 블루 컬러의 대비를 포인트로 넣어 역동적이고 자유분방한 움직임을 표현하였고, 그 유동적인 형태의 중첩과 반복을 통해 표현되지 않는 내적인 소리, 자아의 감정의 본질을 나타내었다.

하나의 메이크업에 다양한 색상이 공존하더라도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143)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94354&cid=41991&categoryId=41991>

(검색일자: 2023.0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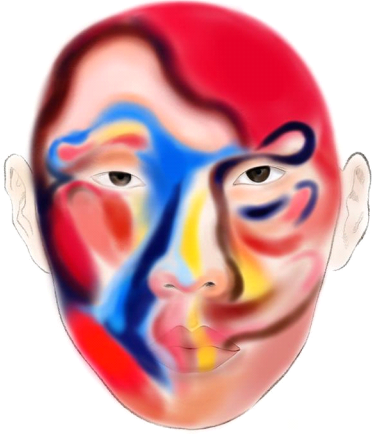
룩 조화를 이루어 예술성과 작품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작품 V의 디자인과 구성 내용은 <표 9>와 같다.

(2) 제작 과정

작품 V의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안료의 착색을 방지하기 위해 파운데이션을 사용해 베이스 메이크업을 한다.
- ② 에어브러시를 이용해 표현할 컬러 중 가장 밝은 컬러인 페일 톤(Pale tone)의 살구색을 얼굴 전체에 도포한 후 충분히 건조 시킨다.
- ③ 중간톤의 핑크 컬러와 옐로우 컬러, 오렌지 컬러를 사용해 추상적인 형태를 만들면서 반복 채색한다.
- ④ 포인트가 되는 비비드 톤(Vivid tone)의 레드, 블루 컬러를 채색하여 형태를 만든다.
- ⑤ 어두운 계열의 컬러를 사용해 기존의 얼굴 윤곽의 형태를 왜곡한다.
- ⑥ 표현하고자 하는 색이 다른색으로 덮히면 또 다시 반복하여 원하는 색감이 나오도록 반복 작업한다.
- ⑦ 비비드 한 톤의 영역 중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동일 색의 아이새도우를 올려 발색력을 높인다.
- ⑧ Adobe Photoshop 2020을 활용하여 이미지의 전체적인 톤을 맞춰준다.

<표 9> 작품 V 디자인과 구성 내용

디자인표	
작품명	Flow
조형적 특성	중첩성
표현기법	회화적 기법, 에어브러시 기법
재료	리퀴드 파운데이션, 아이섀도우, 에어브러시 물감, 에어브러시
색상	
일러스트	디자인
	



<그림 45>
작품 V - Flow

6) 작품 VI - Pieces of Me

조형적 특성: 해체와 재구성

표현 기법: 오브제 활용 기법

(1) 작품설명

작품 VI은 조각이 모여 완전한 ‘나’ 자신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에 나타난 조각들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완전한 모습을 구성하고 있지 않고 해체된 듯이 보인다. 하지만 연구자는 이 구성 자체가 불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건설이 어떤 파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비정형으로 깨진 듯이 보이는 조각들은 그동안 감지되지 않았던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찬란한 창조의 바탕일지 모른다.

입체주의의 조형적 특성 중 ‘해체와 재구성’을 활용하였고 아트메이크업 표현 기법 중 오브제 활용 기법을 이용하여 표현했다. 오브제 재료로는 직접 촬영한 이미지를 사용하였고 화면에서 양감을 나타내기 위하여 촬영한 이미지를 프린트한 종이를 해체한 후 재구성하여 다시 촬영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기존의 아이라인의 범위에서 벗어나 눈의 앞뒤로 라인을 확장하여 의도적으로 질서화 균형감을 파괴하고 시각적인 강렬함을 표현했다. 아이라인은 블랙 펜슬을 이용하여 가늘고 과장되게 표현, 립은 채도가 높은 레드 컬러를 사용해 모델의 립 라인보다 오버립으로 연출하여 덩어리감이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각 부위의 개별적인 개성과 독립성을 강조하였다.

대상을 새로운 형상으로 재구성해 왜곡하거나 고유의 형태를 모순되게 결합하여 대상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일탈을 표현함으로써 감상자에게

시각적 낯설과 모호함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고자 하였다.




조각난 이미지의 단면들도 곡선이 아닌 날카로운 선과 면의 모양으로 해체하여 재구성 함으로써 마치 거울이 깨진 것처럼 해체된 ‘나’의 일부를 표현하고자 했다. 작품 VI의 디자인과 구성 내용은 <표 10>과 같다.

(2) 제작 과정

작품 VI의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모델의 피부톤에 맞는 파운데이션을 사용해 베이스 메이크업을 한다.
- ② 얼굴에 자연스러운 음영감을 주고 전체적으로 파우더 처리를 한다.
- ③ 블랙 젤 아이라이너를 사용해 아치형의 얇은 아이브로우를 그려준다.
- ④ 블랙 젤 아이라이너를 사용해 아이라인을 앞뒤로 확장하여 그려준다.
- ⑤ 매트(Matt)한 질감의 빨간색의 립스틱으로 모델의 립 라인보다 오버립으로 그려준다.
- ⑥ 헤어왁스를 이용해 머리카락의 텍스처를 살린다.
- ⑦ 정면으로 사진 촬영을 한다.
- ⑧ Adobe Photoshop 2020을 활용하여 이미지의 전체적인 톤을 맞춰준다.
- ⑨ 완성된 이미지를 여러 장 프린트한다.
- ⑩ 프린트된 이미지 한 장을 베이스 이미지로 놓고 나머지 이미지들을 가위로 조각내어 이미지를 해체한다.
- ⑪ 해체된 형태들을 베이스 이미지 위에 올리면서 재구성한다.
- ⑫ 재구성된 이미지를 다시 촬영한다.

<표 10> 작품 VI 디자인과 구성 내용

디자인표	
작품명	Pieces of Me
조형적 특성	해체와 재구성
표현기법	오브제 활용 기법
재료	리퀴드 파운데이션, 파우더, 젤 아이라이너, 립스틱
색상	
일러스트	디자인
	



<그림 46>
작품 VI - Pieces of Me

7) 작품 VII - Camouflage

조형적 특성: 해체와 재구성

표현 기법: 회화적 기법

(1) 작품설명

작품 VII는 입체주의의 조형적 특성 중 해체와 재구성을 접목시켜 표현하였으며 <그림 47>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적인 얼굴의 형태를 무시하고 해체하여 그 영역을 추상적인 면의 형태로 재창조하였다. 추상적인 형태의 표현과 함께 얼굴의 형태와 대칭구도는 파괴되고 탈형식적인 디자인을 보여준다.

형태의 질서를 깨트림으로써 새로운 조화성, 부조화와 불완전성의 미적 가치를 표현함과 동시에 본래의 정체나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거짓으로 꾸미고 본인의 감정이나 실체를 감추는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색채는 하나의 언어와 같이 의미작용을 하며 기호를 생산해 낸다. 또한, 작품에 생명력을 주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자 대상의 표현적 속성을 보여주는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¹⁴⁴⁾. 핑크색은 19세기에 하찮게 여겨졌던 소재인 플라스틱의 색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천박하거나 짐작지 못한 색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동시에 피부색을 닮아 에로틱하게 인식되기도 했다¹⁴⁵⁾.

따라서 본 작품에서 핑크색을 사용함으로써 사회화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습득된 고착화된 우리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여전히 사회적인 시선이 두려워 본인의 진짜 모습을 감추고 위장하는 현

144) 이화진 (2003), 핑크색과 일상적 사물의 정물사진 표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2.

145) Ibid., p.26.

대인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 Ⅶ의 디자인과 구성 내용은 <표 11>과 같다.

(2) 제작 과정

작품 Ⅶ의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제작한 바라클라바를 착용한다.
- ② 모델의 피부톤보다 한톤 밝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한다.
- ③ 불필요한 유분기를 잡기 위해 파우더 처리를 한다.
- ④ 라이트 톤(Light tone)의 셀먼 핑크 컬러를 이용해 얼굴의 외곽, 입술, 눈썹 뼈, 눈두덩이에 1차 음영감을 준다.
- ⑤ ④에서 음영감을 준 부위에 채도가 높은 형광기가 도는 핑크 컬러를 사용해 강조하고자 하는 부위에 음영감을 더 없애주어 전체적으로 그라데이션 되도록 한다.
- ⑥ 아쿠아컬러 블랙 색상을 사용해 얼굴에 추상적인 형태를 그린다.
- ⑦ 촬영한다.
- ⑧ Adobe Photoshop 2020을 활용하여 이미지의 전체적인 톤을 맞춰준다.

<표 11> 작품 VII 디자인과 구성 내용

디자인표	
작품명	Camouflage
조형적 특성	해체와 재구성
표현기법	회화적 기법
재료	리퀴드 파운데이션, 파우더, 아이섀도우, 아쿠아컬러
색상	
일러스트	디자인
	



<그림 47>
작품 VII - Camouflage

8) 작품 VIII - Illusion

조형적 특성: 사실성

표현 기법: 오브제 활용 기법

(1) 작품설명

<그림 48>의 작품 VIII은 사상이나 감각의 착오로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로 보이는 환각 현상에 간혀있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입체주의의 조형적 특성인 사실성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종이를 재료로 사용하였다. 작품 속의 인물은 종이조각들에 덮여 본인의 모습의 일부분들이 가려지는 형태를 보여준다. 구겨지거나 손상되기 쉬운 연약한 물성을 지니고 있는 종이라는 재료의 속성을 통해 관념과 규칙들에 의해 쉽게 포장되고 만들어지는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한다.

사용된 종이는 나무의 나이테 모양이 양각으로 찍힌 질감을 가진 종이, 골판지, 약간의 광택감이 느껴지는 트레이싱페이퍼 등 여러 가지의 다른 질감을 가진 종이를 사용했다. 각 종이의 절단면을 깔끔하게 자르기도 하고 손으로 찢는 방법을 사용해 표면의 촉각적인 처리를 하였고 분석적 입체주의에서 볼 수 있는 단색조의 색상을 선택하였다. 환영에 간혀 있는 우리이지만 그중 일부에선 자아를 찾아가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그 혼란스러운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모델의 얼굴 일부분(눈, 코, 귀)을 촬영하여 프린트한 트레이싱페이퍼도 같이 사용하였다.

아트메이크업의 표현 기법의 하나인 오브제 활용기법 또한 입체주의가 여러 개의 형태적 시각을 재조립하는 과정에서 사실성을 추구하는 시도의 하나로 탄생한 콜라주가 발전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입체주의 작가들이 사물에 대한 선택과 인식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준

것과 같이 연구자의 작품이 감상자에게 스스로의 환영적 시각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작품 Ⅷ의 디자인과 구성 내용은 <표 12>와 같다.

(2) 제작 과정

작품 Ⅷ의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모델의 피부톤에 맞춰 베이스 메이크업을 한다.
- ② 얼굴의 음영감을 주고 전체적으로 파우더 처리를 한다.
- ③ 눈썹은 결만 다듬어주고 내추럴하게 표현한다.
- ④ 립 컬러는 자연스러운 누드톤으로 발라준다.
- ⑤ 다각도로 1차 이미지 촬영을 한다.
- ⑥ 1차 이미지를 트레이싱페이퍼에 프린트한다.
- ⑦ 1차 이미지와 종이를 추상적인 모양으로 자르고, 몇 개는 손으로 찢어준다. Adobe Photoshop 2020을 사용하여 이미지의 전체적인 톤을 맞춰준다.
- ⑧ 피부에 사용이 무해한 아이래시 글루를 이용해 모델의 얼굴에 준비된 재료들로 콜라주 한다.
- ⑨ 촬영한다.
- ⑩ Adobe Photoshop 2020을 사용하여 이미지의 전체적인 톤을 맞춰준다.

<표 12> 작품 VIII 디자인과 구성 내용

디자인표	
작품명	Illusion
조형적 특성	사실성
표현기법	오브제 활용 기법
재료	리퀴드 파운데이션, 파우더, 색지
색상	
일러스트	디자인
	



<그림 48>
작품 VIII - Illusion

IV. 결 론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입체주의에 대한 이론적 배경,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아트메이크업의 조형요소와 표현기법을 적용해 작품을 제작하였다.

입체주의의 조형적 특성을 활용한 아트메이크업 작품을 제작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입체주의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와 단행본 등을 참고하였고 동시성, 도형성, 중첩성, 해체와 재구성, 사실성 5가지로 분류하였다.

둘째, 분류된 입체주의의 조형적 특성 5가지를 응용하여 ‘고정관념, 기준, 틀’과 같은 공통된 키워드에 대한 메시지를 해체, 왜곡, 변형, 재구성 등의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디자인하고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작품 I, ‘Personality’는 입체주의의 조형적 특성 중에서 동시성을 활용한 작품으로 여러 각도의 이미지를 하나의 대상으로 결합하여 만들었다.

작품 II, ‘Over There’는 입체주의 작가들이 대상의 참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복수시점을 화면에 실현한 것과 같이 동시성을 나타낸 작품으로 감상자에게 ‘나’에 대한 의문과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봤으면 하는 연구자의 의도를 담은 작품이다.

작품 III, ‘Odd Eye’는 입체주의의 조형적 특성 중에서 도형성을 나타낸 작품으로 도형 중 단순한 선만을 이용해 ‘다름은 틀림이 아닌 특별함’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강렬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작품 IV, ‘Fragments on the face’는 다양한 기하학적 형태의 편린을 합성함으로써 입체주의의 조형적 특성 중 도형성을 접목시킨 작품이다.

작품 V, ‘Flow’는 입체주의의 조형적 특성 중에서 중첩성을 적용한 작품

으로 색채를 겹겹이 반복하여 리듬감과 깊이감을 표현하였으며, 주체성을 찾기 위해 몰입하고 있는 상태와 그 본질을 더욱 강하게 나타내고자 하였다.

작품 VI, 'Pieces of Me' 입체주의의 조형적 특성 중에서 해체와 재구성을 나타낸 작품으로 깨지고 파괴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위한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작품 VII, 'Camouflage' 입체주의의 조형적 특성 중에서 해체와 재구성을 응용하여 사회적으로 고착화된 시선으로 인해 본인을 숨기고 위장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했다.

작품 VIII, 'Illusion'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종이를 아트메이크업의 재료로 사용함으로써 입체주의의 사실성을 응용하여 관념과 규범 속에 포장되고 만들어지는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연구자는 상기의 작품을 통해 기존의 경계를 허물고 아트메이크업의 예술적 가치를 깊이 있게 표현하고자 의도하였다. 작품 속에는 다양한 재료와 이미지를 결합하여 다시각적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고 구현하였다.

이미지를 창출함에 있어 보수적인 평면적 회화 형태를 벗어나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조형성을 시도한 입체주의의 표현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입체주의의 표현 특성을 아트메이크업에 재조명하였다.

이로써 입체주의는 아트메이크업의 예술성과 독창성을 더욱 시각적으로 승화시켜줄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대 미술사의 도입과 응용은 주제와 재료의 한계에서 탈피한 아트메이크업을 높은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려 폭넓은 작품세계의 이해를 돕는 계기가 되며 그 시각적 영역을 넓혀주는 매체라고 할 수 있다.

2. 한계점과 제언

본 연구를 통하여 연구자는 오랫동안 사회적, 문화적으로 고착되어 우리에게 단일한 시각을 갖게 하는 것들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아트메이크업으로 이미지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회화적 표현기법을 넘어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도를 통하여 조형 예술로서 아트메이크업의 영역과 장르를 확대하고 모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아트메이크업의 표현 범위가 너무 얼굴에만 국한되어 있고 토탈 코디네이션으로서 헤어 연출이나 신체의 일부에도 메이크업이 같이 병행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앞으로 확장된 이미지를 통해 더 많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탐구하고자 한다.

얼굴은 단지 아름다움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재료라고 생각한다. 신체의 일부로서 캔버스보다 더 많은 의미를 생산하고 담아낼 수 있기에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아트메이크업의 영역이 조형예술로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아트메이크업의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길 바라며 메이크업 아티스트 스스로가 예술가로서의 자의식을 갖고 대중문화의 중심이 되어 다른 예술과 대중에게 영감과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작품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더불어 미술사조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분야에서의 탐색과 연구가 이루어져 다양한 장르를 접목한 실험적인 시도들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단행본>

- G. 아쁠리네에르, 오병욱 역 (1991), 「미학적명상: 입체주의 화가들」, 서울: 일지사, p.166.
- 김양은 외 3명 (2009), 「아트 메이크업」, 파주: 광문각, pp.36-37.
- 노버트 린튼, 윤난지 역 (1993), 「20세기의 미술」, 서울: 예경, p.70.
- 민경우 (1995), 「디자인의 이해」, 서울: 미진사, p.171.
- 박천신 (2008), 「디지털 아트&디지털 페인팅」, 서울:한언, p.16.
- 신원선, 권태순 (2014), 「아트 메이크업 발상」, 서울: 훈민사 p.10,22,24, pp.28-30.
- 안네 간테튀러-트리어, 김광우 역 (2008), 「입체주의」, 서울: 마로니에북스, p.16,64.
- 에드워드 F. 프라이, 김인환 역 (1988), 「큐비즘」, 서울: 미진사, p.102.
- 오광수 (1976), 「서양근대회화사」, 서울: 일지사, p.59.
- 이부영 (1978), 「분석심리학」, 서울: 일조각, pp.82-83.
- 이화순 외 3명 (2010), 「The Art of Makeup」, 서울: 형설출판사, p.8,32.
- 인고 발터, 정재곤 역 (2005), 「파블로 피카소」, 서울: 마로니에북스, p.37.
- 정문규 (1982), 「브라크」, 서울: 서문당, p.106.
- 존 버거, 하태진 역 (1995),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 현대미학사, p.1.
- 천지연 외 5명 (2013), 「아트 & 캐릭터 메이크업= Art & character make up」, 서울: 청구문화사, p.10,49.
- 캐롤 스트릭랜드, 김호경 역 (2000), 「클릭, 서양미술사: 동굴벽화에서 비디

- 오아트까지」, 서울: 예경, p.251.
- 하요 뒤히팅, 김재웅 역 (2008), 「어떻게 이해할까? 입체주의」, 서울: 미술
문화, pp.34-35.
- 한국미용학회 (2003), 「미용학사전」, 서울: 신광출판사, p.573.
- 한석우 (1991), 「입체조형」, 서울: 미진사, p.51.

<학위논문>

- 강현신 (2011), 아트 메이크업에 표현된 큐비즘 이미지: 피카소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4.
- 김상아 (2018), 피카소 큐비즘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프로젝션맵핑 바디아
트 제작,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4,
pp.6-11.
- 김성봉 (2000), 입체파의 조형성이 러시아 구성주의 건축에 미친 영향에 관
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4, pp.8-9.
- 김소정 (2018), 파편화된 여성 신체 이미지 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숙
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61.
- 김소현 (2018), 메이크업 이미지 디자인 활용을 위한 색채 연구, 서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7,9.
- 김수빈 (2020), 엔트로피를 응용한 바디아트 작품 제작 연구, 성신여자대학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31-32.
- 김순미 (2009), 중학교 미술감상 수업을 통한 입체파의 형(form)개념 학습지
도안 연구: 피카소 작품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17.
- 김연아 (2015), 바디아트퍼포먼스와 메를로퐁티 몸 형상학의 상호작용 관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1.

- 김주희 (2013), 입체주의 표현기법을 활용한 미술수업 지도방안 연구: 중학교 2학년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10,14.
- 김초롱 (2017), 트라이벌무드 패션 경향 및 표현 특성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개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15.
- 김현아 (2017), 파피에 콜레와 콜라주 표현기법을 활용한 미술지도 프로그램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14.
- 노석준(1993), 큐비즘회화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6.
- 문지현 (2007), 입체주의 양식을 활용한 자화상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5.
- 박성경 (2017), 미니멀아트의 특성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작품제작,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9.
- 박정신 (2008), 뽀플린의 양식 개념에 의한 메이크업의 시각적 표현형식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2.
- 배삼수 (2001), 세잔의 작품이 큐비즘에 끼친 영향 연구, 경기대학교 조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1,28.
- 백지은 (2014), Pablo Picasso 작품을 응용한 뷰티 일러스트레이션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6.
- 변영희 (2003), 현대 메이크업에 표현된 추(醜) 이미지에 관한 연구: 색채 표현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3.
- 성필규 (2011), 분석적 큐비즘 회화의 기하학적 형태미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7,20,22.
- 송미영 (2006), 얼굴의 형태적 특성과 메이크업에 따른 얼굴 이미지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34.

- 송민아 (2023), 피카소 화풍을 응용한 회화적 기법의 뷰티일러스트와 페이스 페인팅 디자인 연구, 영산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2.
- 송아라 (2009), 큐비즘을 활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15, pp.19-33.
- 안유현 (2023), 큐비즘의 조형성과 해체주의 패션의 특성을 결합한 패션디자인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2.
- 유정주 (2003), 아트 메이크업에 나타난 오브제의 소재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4,27,32.
- 윤선욱 (2014) 해체와 조합에 의한 도자조형 연구: 사물의 박제화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
- 이경미 (2012), Photoshop을 이용한 아트메이크업의 피카소 큐비즘적 표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3.
- 이규리 (2012), 입체주의적 꼴라쥬 특성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연구: 파피에 콜레 기법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6,47,49,64.
- 이승주 (2005),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 트렌드 이미지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7.
- 이재윤 (2002), 직물의 중첩 효과 연구: 중조직 기법을 이용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 이현주 (2003), 피카소의 회화를 응용한 바디아트(Body Art)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2.
- 이화진 (2003), 핑크색과 일상적 사물의 정물사진 표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2,26.

- 임경옥 (1999), 피카소 작품 양식 변화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5-16.
- 장연아 (2016), 현대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메이크업 디자인 조형성 연구, 우송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1,29, pp.13-14.
- 장현희 (2007), 스텐실 기법을 활용한 염색공예 수업연구: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
- 채송화 (2018), 창의적 발상법과 현대미술특성을 활용한 아트메이크업디자인 프로세스 연구, 서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3,58, pp.60-64.
- 최미라 (2004),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추(醜)이미지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6.
- 최예리 (2013), 현대 패션에 나타난 큐비즘스타일패션 연구: 2010 S/S~2013 S/S파리컬렉션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7, pp.22-35.
- 최은화 (2014), 입체주의 특성이 적용된 아트메이크업 작품 분석, 광주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10,38.
- 최주희 (2021), 플라톤 이데아론을 바탕으로 아상블라주 기법을 활용한 아트메이크업 작품제작,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5,26,28, pp.34-35.
- 홍주영 (2014), 큐비즘 회화의 조형적 특성을 활용한 헤어아트: 피카소 작품을 중심으로, 서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37,39.

<학회지>

- 류지석, 오찬옥 (2005), 큐비즘에 관한 연구 베르그송 철학과 동시성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학회지, 18(3), p.125.

박은희 (2008), 피카소의 조형성에 근거한 샤넬 의상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0(3), pp.344-351.

유태순, 김일분 (1993), 큐비즘(cubism) 미술이 현대 의상 디자인에 미친 영향: 1910~1920년대를 중심으로,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연구논문집, 46(1), p.196.

임혜순, 충쇼우닝 (2016), 큐비즘 회화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의상 디자인 개발,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8(1), p.66,69.

국외문헌

Bartlett, D (2014), Fashion media: Past and Present」, London: Bloomsbury, p.176.

Richardson, N (2010), Transgressive Bodies: Representations in Film and Popular Culture, Farnham: Ashgate Publishing Group, p.3.

인터넷자료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정육면체> (검색 일자: 2023.01.13.)

네이버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39695&cid=40942&categoryId=33131> (검색 일자: 2023.01.13.)

위키아트,

<https://www.wikiart.org/en/georges-braque/houses-at-estaque-1908>
(검색 일자: 2023.01.16.)

위키아트,

<https://www.wikiart.org/en/pablo-picasso/house-in-the-garden-1908>

(검색 일자: 2023.01.16.)

위키아트,

<https://www.wikiart.org/en/pablo-picasso/portrait-of-ambroise-vollard-1910> (검색 일자: 2023.01.17.)

위키아트,

<https://www.wikiart.org/en/georges-braque/portuguese-1911>

(검색 일자: 2023.01.17.)

위키아트,

<https://www.wikiart.org/en/georges-braque/fruitdish-and-glass-1912>

(검색 일자: 2023.01.18.)

위키아트,

<https://www.wikiart.org/en/georges-braque/violin-and-pipe-le-quotidien-1913> (검색 일자: 2023.01.18.)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Les_Demoiselles_d%27Avignon

(검색 일자: 2023.01.20.)

위키아트,

<https://www.wikiart.org/en/georges-braque/musical-instruments-1908>

(검색 일자: 2023.01.20.)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The_Weeping_Woman

(검색 일자: 2023.01.20.)

위키아트,

<https://www.wikiart.org/en/pablo-picasso/femme-assise>

(검색 일자: 2023.02.07.)

위키아트,

<https://www.wikiart.org/en/jean-metzing/le-go-ter-1911>

(검색 일자: 2023.02.08.)

위키아트,

<https://www.wikiart.org/en/pablo-picasso/musicians-with-masks-1921-1>

(검색 일자: 2023.02.08.)

네이버사전,

https://dict.naver.com/search.dict?dicQuery=overlapping&query=overlapping&target=dic&ie=utf8&query_utf=&isOnlyViewEE=

(검색 일자: 2023.02.10.)

위키아트,

<https://www.wikiart.org/en/pablo-picasso/houses-on-the-hill-1909>

(검색 일자: 2023.02.21.)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Brick_Factory_at_Tortosa

(검색 일자: 2023.02.21.)

위키아트,

<https://www.wikiart.org/en/pablo-picasso/bread-and-dish-with-fruits-on-the-table> (검색 일자 : 2023.02.22.)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The_Accordionist (검색 일자: 2023.02.24.)

위키아트,

<https://www.wikiart.org/en/pablo-picasso/portrait-of-daniel-henry-kahnweiler-1910> (검색 일자: 2023.02.24.)

위키아트,

<https://www.wikiart.org/en/pablo-picasso/girl-with-mandolin-fanny-teller-1910> (검색 일자: 2023.02.24.)

위키아트,

<https://www.wikiart.org/en/pablo-picasso/still-life-with-the-caned-chair-1912> (검색 일자: 2023.02.24.)

위키아트,

<https://www.wikiart.org/en/pablo-picasso/the-guitar-1913>
(검색 일자: 2023.02.24.)

두산백과 두피디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040531&cid=40942&categoryId=33048> (검색 일자: 2023.02.25.)

알렉스박스,

<https://thealexbox.com/ab0014/> (검색 일자: 2023.03.07.)

DSCENE beauty Magazine,

<https://www.beautyscene.net/beauty-shoots/georgia-may-jagger-by-daniel-sannwald-for-garage-f-w-2014/> (검색 일자: 2023.03.07.)

보그런웨이,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4-ready-to-wear/alexander-mcqueen/slideshow/beauty#5> (검색 일자: 2023.03.07.)

핀터레스트,

<https://www.pinterest.co.kr/pin/602215781444258292/>
(검색 일자: 2023.03.08.)

핀터레스트,

<https://www.pinterest.co.kr/pin/602215781444258244/>

(검색 일자: 2023.03.08.)

보그런웨이,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0-ready-to-wear/alexander-mcqueen/slideshow/beauty#1> (검색 일자: 2023.03.08.)

핀터레스트,

<https://www.pinterest.ca/pin/382665299558591454/> (검색 일자: 2023.03.09.)

핀터레스트,

<https://www.pinterest.co.kr/pin/315744623888743339/>

(검색 일자: 2023.03.09.)

핀터레스트,

<https://www.pinterest.co.kr/pin/602215781445002736/>

(검색 일자: 2023.03.09.)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b0a7912519f547e6915c098a28d96c0a>

(검색 일자: 2023.03.15.)

알렉스박스,

<https://thealexbox.com/archive> (검색 일자: 2023.03.15.)

핀터레스트,

<https://www.pinterest.co.kr/pin/602215781444300742/>

(검색 일자: 2023.03.15.)

Essential Homme Magazine,

<https://www.essentialhommemag.com/lcm-backstage-agi-sam-autumnwinter-2015/> (검색 일자: 2023.03.16.)

보그유케이,

<https://www.vogue.co.uk/gallery/spring-summer-2015-backstage-model->

diary (검색 일자: 2023.03.16.)

텀블러,

<https://leah-cultice.tumblr.com/post/151098685460/aneta-pajak-by-ben-hasset-for-vogue-paris-october> (검색 일자: 2023.04.18)

Maxine Tall Management,

<https://www.maxinetall.com/portfolio/makeup/540821/paul-innis/beauty-specialty> (검색 일자: 2023.03.18.)

알렉스박스,

<https://thealexbox.com/archive> (검색 일자: 2023.03.18.)

비헨스,

https://www.behance.net/gallery/56506821/Magazine-covers?tracking_source=curated_galleries_list (검색 일자: 2023.03.18.)

ABSTRACT

A Study on Art Makeup Works applying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Cubism

Kim, So Jeong

Make-up · Special Effect Make-up Major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Beauty
Sungshin Women's University

Painting provides visual elements and decorative qualities, allowing viewers to experience various emotions through the act of viewing the artwork. Therefore, it is utilized as a source of inspiration in various fields such as architecture, fashion, and design. The field of art makeup also generates a variety of creative makeup designs, breaking away from the traditional choice of expression techniques and colors that were considered formulaic based on painting works.

Art makeup is a genre of formative art that can visually express the internal imaginative world of humans. Consequently, in order to effectively

convey the researcher's intentions to the viewer, the motif of formative characteristics found in Cubism painting works was employed in relation to the subject matter of the study.

This study analyzes the expression methods of Cubism painting by period, considering the concept and developmental stages of Cubism as a starting point. Based on this analysis,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were identified.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Cubism were classified into five categories: simultaneity, shape, overlap, dismantling and reconstruction, and realism, with reference to previous studies and book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hich produced art makeup works applying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Cubism, are as follows:

All eight works encapsulate the researchers' thoughts on socially constructed fixed concepts and standards.

Work I, "Personality," demonstrates simultaneity among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Cubism and portrays a modern individual who confuses their social persona with their true personality.

Work II, "Over There," conveys a message about grasping the true nature of human beings and recognizing their inherent beauty. It also embodies simultaneity among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Cubism.

Work III, "Odd Eye," showcases shape among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Cubism, with the message that 'being different is special, not wrong.'

Work IV, "Fragments on the Face," exhibits the graphic nature of Cubism and expresses internal diversity by organizing the composition with geometric shapes and colors.

Work V, "Flow," aims to explore subjectivity through the repetition and overlapping of various colors, employing overlapping as one of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Cubism.

Work VI, "Pieces of Me," illustrates the dismantling and reconstruction of Cubism's formative characteristics by deconstructing and contradicting its own form.

Work VII, "Camouflage," is expressed by dismantling the existing facial structure and recreating it in a deformed form, combining dismantling and reconstruction among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Cubism.

Work VIII, "Illusion," conveys realism among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Cubism by incorporating the technique of using objects, representing the appearance of modern individuals shaped by ideas.

The researchers perceive art as an infinite field that transcends boundaries and eradicates our ideological consciousness, allowing for freedom. They also believe that art makeup applied and expressed on the human body can have a more intense and effective impact on viewers.

Through this study, the aim was to create an optimized image by combining comprehensive design elements with art makeup design. Additionally, the hope is for the presentation of diverse and wide-ranging artistic endeavors, serving as valuable material for the advancement of art makeup design and the expansion of its scope.